NEXEN TIRE
MAGAZINE

2025 winter
vol. 98

HELLO NEXEN



우리 모두의 일상이
때로는 같은 자리에 머물고,
때론 같은 길을 가는
무한 반복인 듯 보여도

분명 어제와는 다른 새로운 오늘이다.
그렇게 매일 반짝이는 순간과 마주한다.
끝이 없는 시작, 시작이 없는 끝,
그 안에 담긴 즐거움의 연속

contents

www.nexentire.com

360°

다시, 시작

2025 winter
vol. 98

SPECIAL THEME

06 **SCIENCE**
360° 회전하는 모든 것의 법칙

10 **BEHIND**
360° 열린 공간 '광장'
시대를 초월해, 다시 소통!

16 **TEAM**
지피지기! 소통의 실마리를 찾다
양산공장 공무팀 버크만 진단

20 **ITEM**
새해 초심을 북돋우는
필수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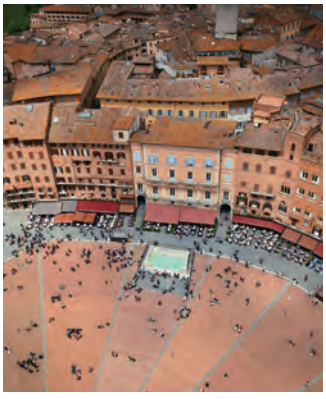
헬로우 넥센

2025 WINTER (통권 98호)
정보간행물 신고번호 양산, 바00008
신고일자 2016년 9월 29일
발행인 강호찬
발행일 2025년 1월 2일
발행처 경남 양산시 충렬로 355 넥센타이어(주)
담당 문화혁신팀 정재환 팀장, 김희진 책임
기획 및 출판 (주)대통기획 02-2269-3613
ISSN 2765-2904

이 책에 쓰인 글과 사진은 작가의 의견에 따른 것으로 넥센타이어의 의견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책에 쓰인 글과 사진을 재사용하려면 〈헬로우 넥센〉과 저작권자 양측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FSC
www.fsc.org
MIX
Paper | Supporting responsible forestry
FSC® C159581

본 사보의 표지 및 내지는 FSC® 인증 종이를 사용하였습니다.



STATION 1

24 **TIRE TECH**
배움에 대한 갈증으로 내일의 가능성을 꽃 피우다!
타이어테크 주안점

28 **문화多방**
월동준비!
세대별 겨울나기도 다를까요?

32 **밥 한끼 프로젝트**
오늘 우리 밥 한 번 먹을까요?
도시락은 소통을 싣고~

36 **NEXEN CSR 1**
나눔의 손길로 따뜻한 연말연시
사랑의 연탄 나눔 봉사 활동

38 **NEXEN CSR 2**
가을철 수확맞이
농촌 일손 돕기 봉사 활동

40 **NEXEN CSR 3**
따뜻한 한끼를 위한 진심이 모이다
창녕공장 배식 봉사 및 김장 나누기

42 **내돈내산**
넥센인들의 피부관리!
내돈내산 믿을만한 찐 후기

STATION 2

48 **미래참견시점**
오늘 태어난 아이, 어떤 미래가 기다리고 있을까?

52 **AI 정복하기**
“AI야! 잘 대답할 수 있지?” 질문의 기술

56 **철학 하는 타이어**
타이어 스키드마크, 기록의 은유성

58 **속마음 번역기**
업무 SNS 메시지, 동료의 속마음이 궁금해!

62 **ISSUE 1**
강호찬 부회장, ‘국가품질상’ 철탑산업훈장 수상

64 **ISSUE 2**
넥센타이어, 오네 슈퍼레이스
‘타이어 제조사 챔피언’ 2년 연속 등극

68 **ISSUE 3**
가왕의 영광을 차지할 최후의 무대가 펼쳐지다!
2024 넥센타이어 복면가왕

70 **ISSUE 4**
핸드드립 커피 원데이 클래스, 섬세한 맛과 향을 찾아!

72 **ISSUE 5**
제4회 더넥센유니버시티 챔피언십 ‘탁구대회’
땀으로 빛난 승부사들의 현장

74 **ISSUE 6**
전사 소통 프로그램 ‘소풍 시즌2’

76 **ISSUE 7**
글로벌 넥센인들의 연말 파티 현장

78 **NEWS**





360°

다시, 시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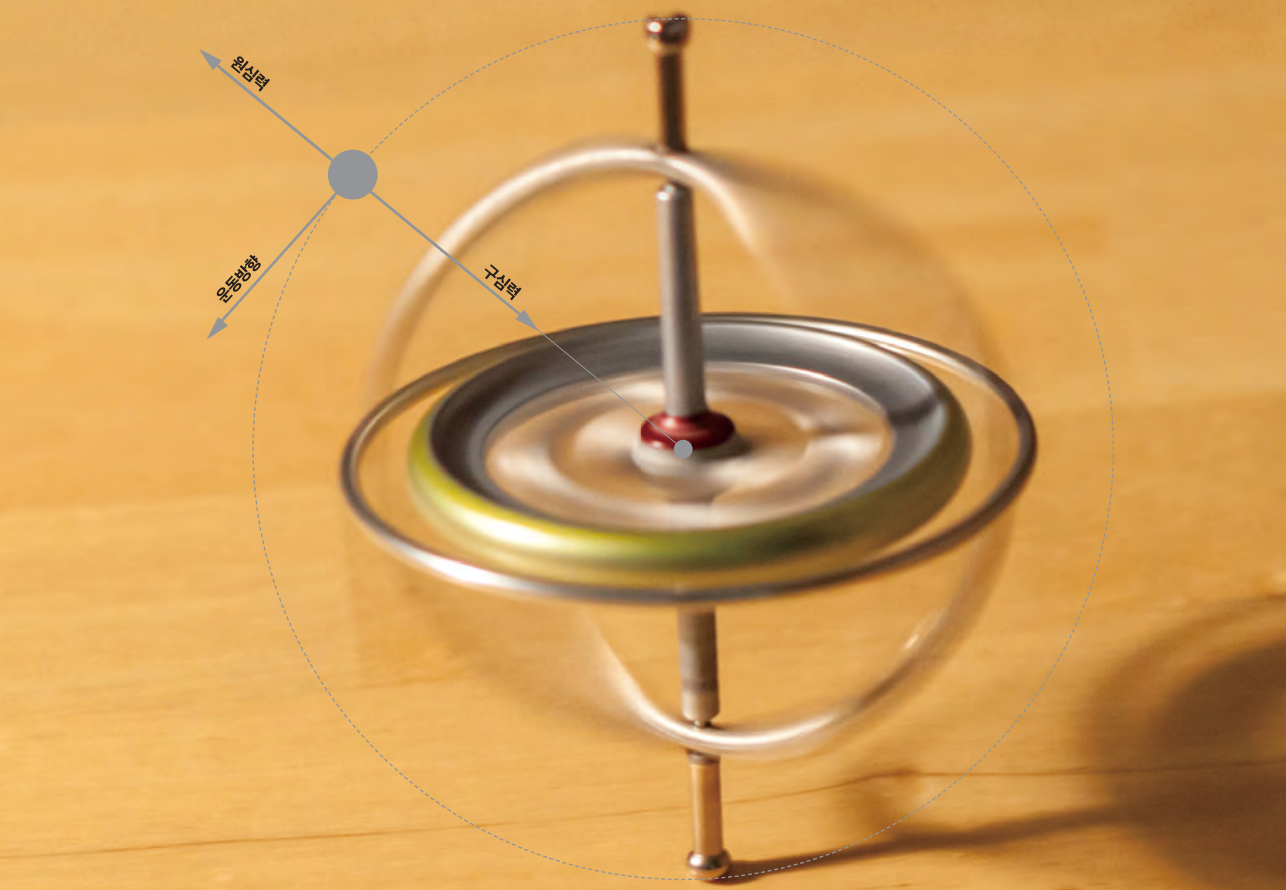
2025년의 출발선에서 타이어는 생각합니다.
“원형으로 회전하며, 끝에서 처음으로, 처음에서 끝으로!
매번 새로움을 달리는 중이야”

타이어의 시간도 우리들의 시간도 ‘다시, 시작’입니다.
우리를 움직이게 하는 것은 완벽한 준비가 아니라
한 걸음 내딛고자 하는 작은 용기입니다.
과거의 실패나 두려움이 머릿속을 스칠 수 있지만, 기억하세요.
실패는 끝이 아니라 배움의 과정입니다. 모든 경험은
한순간에 사라지는 흔적이 아니라 성장의 증거입니다.

이제는 주저함을 내려놓고 새로운 도전을 시작할 때입니다.
“내가 할 수 있을까?”라는 질문 대신,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으로 자신을 믿어보세요. 지금 이 순간이 바로 변화의 시작점입니다.

Text. 강석기 과학칼럼니스트

360° 회전하는 모든 것의 법칙 구심력과 원심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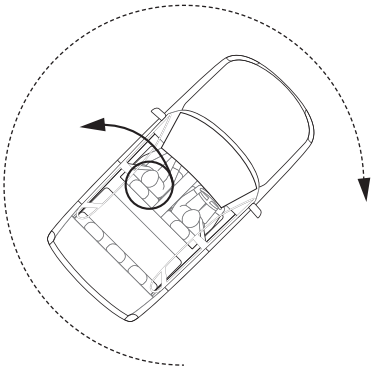
자동차가 코너링을 할 때와 롤러코스터가 360° 회전을 할 때 일어나는 물리적 현상은 꽤 비슷하다. 전자는 수평 코너링이고 후자는 수직 회전이므로 별개의 현상 같지만 둘 다 구심력과 원심력의 작용이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인공위성이 지구 주위를 돌면서 떨어지지 않고 돌 수 있는 것도 이들 힘의 작용 덕분이다. 구심력과 원심력은 중고교 학생 시절 물리 시간에 배운 개념들이지만 설명해보라면 당황하지 않을까.

원심력은 가상의 힘

먼저 구심력을 살펴보자. 직선 운동을 하는 물체의 진행 방향이 바뀌려면 다른 방향의 힘이 작용해야 한다. 직선의 진행 방향과 직각으로 작용하는 힘이, 물체의 진행 방향을 곡선으로 휘게하는데, 이 힘의 크기가 일정할 경우 원을 그린다. 직각 방향 힘이 작으면 휘는 정도, 즉 곡률이 완만해 커다란 원을 그리고 힘이 크면 곡률이 가팔라서 작은 원을 그린다. 이때 물체에 직각인 힘은 늘 원의 중심을 향하므로 구심력이라고 부른다.

구심력을 얘기할 때 함께 등장하는 원심력은 실재하지 않는 가상의 힘이다. 따라서 "인공위성처럼 회전하는 물체가 추락하지 않는 이유는 구심력과 원심력이 평형을 이루기 때문이다"라는 식의 설명은 틀린 말이다. 엄밀히 말하면 원심력은 회전하는 좌표계에서 관찰되는 힘이다. 즉 운동을 기술하는 기준이 되는 좌표를 어떻게 잡느냐에 따라 우리가 익숙한 관성(정지)좌표계에서는 구심력만, 비관성(가속)좌표계인 회전하는 좌표계에서는 원심력만 존재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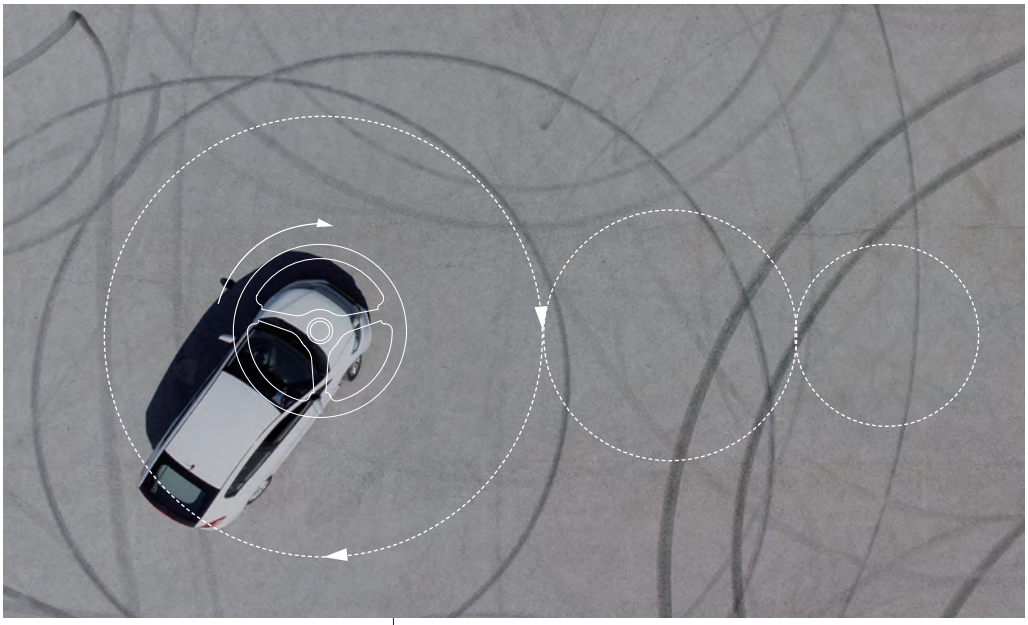
회전하는 좌표계라는 개념이 어려울 수도 있는데, 차 안에 안전벨트를 맨 채 눈을 감고 바른 자세로 앉아있는 나의 모습을 상상해보자. 자동차가 코너를 돌 때 몸이 회전 방향의 반대로 쏠리는 것처럼 느껴질 것이고 따라서 원심력의 작용이라고 생각하기 쉽다. 그러나 관성좌표계를 따르는 상공에 정지한 드론에서 아래를 촬영한 화면을 보면 나의 몸은 회전하기 이전 진행 방향으로 쏠리는 관성의 작용을 받을 뿐이다.



좌표계에 따른 구심력과 원심력 차이를 좀 더 명쾌히 하기 위해 육상 종목인 해머던지기를 살펴보자. 선수가 쇠공이 달린 쇠줄 끝의 손잡이를 양손으로 붙잡고 온몸으로 빙빙 돌다가 손잡이를 놓으면 쇠공이 멀리 날아간다.

이 과정을 시청자(관성좌표계)의 관점에서 보면 회전하는 쇠공은 원의 중심, 즉 선수 방향으로 구심력을 받고 있다가 손을 놓는 순간 구심력이 사라지면서 진행 방향(관성)으로 날아가는 것이지 원심력의 작용 때문이 아니다. 경기 화면을 유심히 보면 선수가 손잡이를 놓는 순간 쇠공은 선수 앞의 운동장 쪽이 아니라 옆쪽을 향하고 있다. 쇠공은 줄의 방향과 직각 방향으로, 즉 줄을 놓는 순간 쇠공의 진행 방향으로 날아간다.





속도 제곱으로 커지는 힘

구심력을 나타내는 수식을 보면 물체의 질량에 비례하고 속도 제곱에 비례하고, 회전하는 물체가 그리는 원의 반지름에 반비례한다. 얼핏 복잡해 보이지만 찬찬히 생각해보면 자연스러운 현상을 수학적으로 표현한 것뿐이다. 해머던지기 선수들이 덩치가 큰 것도 큰 구심력을 낼 수 있기 때문이다.

쇠공이 날아가는 거리는 선수 손에서 떨어질 때 회전 속도와 방향(지표면에서 각도)에 따라 정해진다. 7㎏가 넘는(여성은 4㎏) 쇠공은 회전 속도가 빨라질수록 구심력이 엄청나게 커진다. 즉 덩치가 커야 딸려가지 않고 버틸 수 있는 구심력의 한계도 커진다.

한편 구심력이 원의 반지름에 반비례하는 현상은 운동장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는 상황을 떠올리면 쉽게 이해가 간다. 시계방향으로 운동장을 돌려면 핸들을 오른쪽으로 돌리면 된다. 이때 핸들을 조금 꺾으면 차의 진행 방향도 조금씩 바뀌므로 상공의 드론에서 보면 차가 큰 원을 그린다. 핸들을 많이 꺾을수록 진행 방향도 급격히 바뀌고 따라서 그리는 원이 작아진다. 결국 핸들을 꺾는 정도와 발생하는 구심력이 비례한다.

구심력이 속도의 제곱에 비례하고 반지름에 반비례하는 현상은 롤러코스터를 설계할 때 꼭 고려해야 하는 조건이다. 롤러코스터는 레일이 다양한 곡률로 이뤄져 있고 몇 군데는 수직으로 360° 회전하는 원의 궤적을 그린다. 이 경우 구심력이 충분해야지 거꾸로 매달린 채 원의 위를 지날 때 탑승객이 바깥으로 튀어 나가지 않는다. 물론 실제는 최악의 경우 위에서 멈추더라도 안전벨트를 맸기 때문에 떨어지지는 않겠지만 말이다.

게다가 올라가는 경로에서 최고점에 이를 때까지 중력의 작용으로 속도가 느려지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 그러려면 강하지점(lift hill)이 더 높아야 한다(롤러코스터는 위치에너지가 운동에너지로 바뀌면서 작동한다). 그렇게 되면 건설 비용도 크게 뛸 수밖에 없으므로 한계가 있다.



롤러코스터의 360° 회전 구간 원(수직 루프)을 크게 만들려면 주행 속도가 빨라야 한다. 따라서 강하지점이 더 높아야 하므로 건설 비용이 많이 든다. 미국 오하이오주 시더포인트 놀이공원의 롤러코스터인 밀레니엄 포스의 강하지점 높이는 94m나 된다.
제공 위키피디아

구심력이 마찰력보다 클 때 미끄러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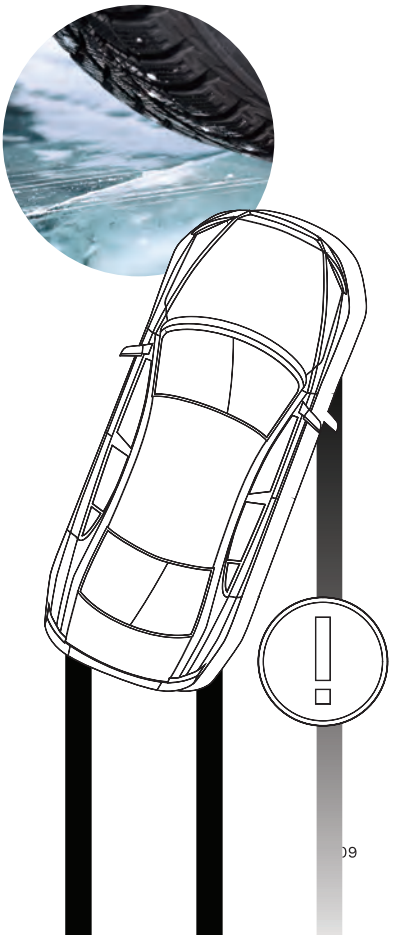
다시 자동차로 돌아와서 코너링과 구심력(운전자 입장에서는 원심력), 그리고 타이어 마찰력의 관계를 생각해보자. 자동차가 미끄러지지 않고 바퀴가 회전한 만큼 이동하는 건 타이어 표면과 도로 표면 사이의 마찰력 덕분이다. 두 표면의 상대적인 위치가 고정되게 잡아주는 마찰력이 안정되게 유지되지 않으면 제대로 운전할 수 없다. 빗길이나 특히 블랙아이스가 생긴 도로가 위험한 이유다.

설사 도로 상태가 좋더라도 코너링을 잘못하면 차가 미끄러져 곡선 구간의 차선을 벗어날 수 있다. 이는 구심력과 마찰력의 관계로 설명할 수 있다. 앞서 얘기했듯이 구심력은 물체의 속도 제곱에 비례하고 회전 반지름에 반비례한다. 따라서 빠르게 달리다 코너링을 할 때 속도를 늦추지 않거나, 빠르게 달리지 않더라도 핸들을 많이 꺾어야 하는 급커브 길에서 속도를 줄이지 않으면 큰 구심력이 발생한다. 그 결과 구심력이 마찰력을 넘어서면 차가 미끄러진다. 고속 주행을 하며 핸들을 많이 꺾으면 아무리 타이어와 길이 좋더라도 차가 미끄러질 수밖에 없는 이유다.

우리는 평소 초자연적인 현상을 진지하게 생각하기도 하지만 실제 세상은 자연(물리)법칙이 냉정하게 재배하는 게 엄연한 현실이다.

자동차 사고를 겪어보면 물리법칙의 냉혹함을 절감할 수 있다. 필자 역시 십수 년 전 운전 중 잠깐 방심해 속도를 늦추지 않고 코너링을 하다 미끄러져 차선을 이탈한 적인 있다. 당시 당황해 브레이크를 밟으며 급하게 핸들을 꺾어 차가 180°도 회전한 뒤 멈췄는데, 다행히 주변에 차가 없어 사고가 나지는 않았다. 지금 떠올려도 아찔한 순간이다.

자동차 역시 구심력(운전자 입장에서는 원심력)과 마찰력의 상호작용이라는 물리법칙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물체의 하나일 뿐이라는 엄연한 사실을 잊지 말아야겠다.



Text. 편집실

360°열린 공간 '광장' 시대를 초월해, 다시 소통!



광장은 시대와 문명을 초월해 사람들이 모이고 대화하며 아이디어와 가치를 교환하는 공간으로 기능해왔다. 고대 그리스와 로마에서 시작된 광장의 전통은 중세 유럽의 도시와 시장을 거쳐 현대의 공공장소와 디지털 광장까지 이어지며, 인간 사회의 중요한 소통의 장으로 자리 잡았다. 소통의 방식과 목적은 각 시대의 사회적, 정치적, 문화적 환경에 따라 변화했지만, 그 본질은 변하지 않았다. 광장은 단순한 물리적 공간을 넘어, 소통을 통해 공동체를 조직하고 문화를 형성하며 역사를 창조하는 핵심적인 장소였다.



그리스 아고라의 대표적 건축물 '헤파이스토스 신전'

중세 유럽의 상업 중심지 '벨기에 브뤼헤 시장 광장'

고대 아고라와 포럼,
광장에서 피어난 소통

고대 그리스의 아고라(Agora)와 로마의 포럼(Forum)은 단순한 도시 구조물이 아니라, 사람들이 만나고 대화하며 공동체를 형성하는 중심지였다. 오늘날 우리가 누리는 공적 담론과 민주적 의사소통의 기반은 이 두 고대 문명에서 시작된 광장 문화의 산물이다.

그리스의 아고라(Agora)는 정치적 담론과 의사소통의 중심지로 발전했다. 민회에서 토론과 투표를 통해 정책을 결정하는 등 직접 민주주의의 원형을 보여줬다. 특히 아고라는 철학적 소통의 공간이었다. 소크라테스와 같은 철학자들은 아고라에서 사람들과 대화하며, 철학적 사유를 촉발시켰다. 소크라테스의 대화법은 단순한 지식 전달이 아니라, 질문과 답변을 통해 진리에 접근하는 과정이었다. 이는 아고라를 단순히 물리적 공간을 넘어, 사고와 아이디어가 교환되고 새로운 관점이 생성되는 정신적 공간으로 승화시켰다.

로마의 포럼은 그리스의 아고라와 유사하면서도, 제국적 특징을 반영한 소통의 중심지로 기능했다. **포럼은 정치, 법, 상업, 종교가 결합된 공간으로, 다층적 소통의 장을 형성했다. 법적 소통은 포럼의 중요한 기능 중 하나였다. 법정은 시민 간의 분쟁을 해결하고, 정의를 실현하는 장이었다.** 여기서 공개적으로 진행된 재판은 단순히 법률적 판단을 내리는 데 그치지 않고, 로마 시민들에게 정의와 법의 가치를 소통하는 교육적 역할을 했다. 로마법의 발전은 이러한 공적 소통을 통해 가능해졌으며, 이는 오늘날에도 여전히 영향을 미치고 있다.

또한 포럼은 정치적 소통의 장이었다. 지도자들은 포럼에서 연설을 통해 정책을 알리고, 시민들과 대화하며 정치적 지지를 확보하는 등 쌍방향으로 소통이 이뤄졌다. 뿐만 아니라 로마의 포럼에 가면 개선문과 기둥, 동상 등을 쉽게 발견할 수 있는데 이는 로마 제국의 승리를 기념하며, 이를 시각적 상징으로 시민들에게 전달하는 기념적 소통의 메시지가 담겨 있는 것이다.

중세의 광장,
소통과 공동체의 중심지

신의 권위와 질서를 강조하던 중세 시대에 광장은 사람들이 모이고 대화하며, 서로의 삶과 생각을 공유하는 소통의 장이었다. 중세 도시가 경제적, 정치적, 사회적으로 성장함에 따라 광장은 단순히 사람들의 이동 경로에 자리 잡은 빈 공간이 아니라, 종교, 경제, 그리고 일상적 상호작용이 융합된 복합적 공간으로 발전했다.

중세 도시의 중심에는 대개 성당이 자리 잡고 있었다. 성당 앞 광장은 종교적 소통의 공간으로, 신앙이 일상과 결합되었던 중세 사회에서 사람들에게 필수적인 장소였다. 파리의 노트르담 대성당 앞 광장은 중세 유럽의 대표적인 성당 광장 중 하나다. 이곳은 시민들이 미사나 종교 행사를 위해 모이는 장소였으며, 성직자들은 설교와 종교적 의례를 통해 사람들에게 신앙의 가르침을 전달했다.

또한 중세 광장은 경제적 소통의 중심지로서도 중요한 역할을 했다. **성당과 가까운 곳이나 도시의 교차로에 위치한 시장 광장(Market Square)은 상품과 정보, 사람들의 교류가 이루어지는 공간이었다.** 상인과 농민들은 광장에서 상품을 사고 팔며 서로 협상하고 거래했다. 이러한 상업 활동은 단순한 경제적 활동이 아니라, 사람들이 만나고 대화하며 지역사회와 연결되는 소통의 과정이었다. 벨기에 브뤼헤(Bruges)의 시장 광장은 중세 유럽의 상업 중심지 중 하나로, 경제적 소통의 대표적인 사례다. 이곳에서 벌어진 상업 활동은 단순히 상품 교환이 아니라, 각 지역의 문화와 정보 교류로 이어졌다. 시장 주변에는 길드 회관이 있어 장인과 상인들이 모여 기술과 아이디어를 공유하며 도시의 경제적, 사회적 성장을 도왔다.



프랑스 혁명의 바스티유 광장



독일 통일의 상징, 베를린 브란덴부르크 문

소통의 새로운 가능성,
디지털 광장

현대에 들어 광장은 새로운 차원으로 진화하며, 다양한 형태의 소통을 담아내고 있다. 도시의 물리적 광장은 여전히 중요한 역할을 하지만, 디지털 기술의 발전은 소통의 새로운 장으로서 디지털 광장을 탄생시켰다. 20세기와 21세기에 이르러, 광장은 시위와 저항 운동의 중심지가 되었다. 프랑스 혁명의 바스티유 광장, 독일 통일의 상징인 베를린의 브란덴부르크 문, 중동 민주화 운동의 타흐리르 광장 등은 사람들이 모여 목소리를 높이는 공간이었다. **시민들은 광장에서 자신의 목소리를 드러내며, 권력자와의 대화를 시도하거나 사회적 변화를 요구했으며, 이는 민주주의 사회에서 광장이 가진 소통의 상징적 힘을 보여줬다.**

무엇보다 현대에 들어 가장 두드러진 광장의 특징은 디지털 기술의 발전이 바탕이 되고 있다. 디지털 기술과 결합된 타임스 스퀘어는 물리적 공간에 머물지 않고, 온라인을 통해 전 세계와 소통하는 장으로 확장되었다. 예를 들어, 타임스 스퀘어의 거대한 전광판은 글로벌 메시지를 전달하는 수단으로 활용되며, 다양한 국제적 캠페인과 이벤트를 지원한다. 뿐만 아니라 **21세기 디지털 기술의 발전은 광장의 개념을 물리적 공간에서 가상 공간으로 확장시켰다. 소셜 미디어, 온라인 포럼, 디지털 플랫폼은 현대판 광장으로 기능하며,** 사람들이 물리적 제약 없이 소통할 수 있는 장을 제공한다.

고대의 아고라와 포럼, 중세의 성당과 시장 광장, 현대의 도시 광장과 디지털 공간까지, 광장은 항상 사람들이 만나 소통하며 공동체를 형성하는 핵심적인 장소였다. 시대에 따라 소통의 방식은 변했지만, 광장이 가진 본질적 가치는 변하지 않았다. 광장은 우리가 소통하고, 이해하며, 함께 살아가는 방식을 만들어가는 심장부다. 광장이 가진 소통의 힘은 시대와 기술의 변화를 넘어, 사람과 사람, 그리고 사람과 사회를 이어주는 본질적 역할을 계속해서 수행할 것이다.



전 세계와 소통하는 거대한 전광판, 뉴욕 타임스퀘어.

Text. 편집실 **Photo.** 김정호

지피지기! 소통의 실마리를 찾다 양산공장 공무팀 버크만 진단

새해를 시작하며 양산공장 공무팀이 과감히 도전한 프로그램은 '버크만 진단'이다. 2025년, 구성원들이 업무에 대한 만족도를 높이고 자기 효능감을 느낄 수 있도록 고민하던 찰나에 사보 <헬로우 넥센>의 팀빌딩 이벤트를 발견하게 됐고, 용기를 내서 신청하게 된 것이다. 하루 중 가장 많은 시간을 함께 보내며 협력을 통해 일의 해결책을 찾고, 때로는 소소한 일상을 나누는 가까운 사이지만, 과연 팀원들은 서로에 대해 얼마나 알고 있을까? 양산공장 공무팀은 소통의 실마리를 찾아가기 위한 첫걸음을 내디뎠다.

BIRKMAN

* 버크만 진단: 1951년 미국 심리학자 Dr.버크만이 개발한 개인 특성 진단으로 사람의 네 가지 주요 관점인 동기부여, 자기인식, 사회적인식, 사고방식을 보여준다.









우리 팀은 영혼의 단짝이었구나!

갈등은 모든 조직에서 나타나지만, 원인을 분석하고 트러블을 완화하기 위해 고민하는 조직만이 퍼포먼스를 낼 수 있다. 갈등이 발생하는 이유는 각자만의 기준을 토대로 취향, 성격, 가치관, 행동 등이 다르게 형성되었기 때문이다. 그 차이가 인간관계의 어려움을 느끼게 만든다.

"인간관계를 긍정적으로 해결하는 사람들의 특징은 '소통의 방법'을 알고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의 다른 점은 무엇이고, 이해를 위해 좀 더 알아야 할 점을 파악하며, 어떻게 조정해야 하는지 방법을 찾습니다. 진정한 소통을 하고자 노력하는 것이죠. **버크만 진단을 통해 팀원들과 나는 어떤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고, 서로의 다름을 긍정적으로 살펴보며 업무의 시너지를 높일 수 있는 방법에 대해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무엇보다 말과 행동으로 드러나지 않는 숨은 욕구와 동기부여를 살펴봄으로써 동료를 깊이 있게 알아갈 수 있는 시간입니다.**"

양산공장 본관동 2층 회의실에 모인 8명의 참여자들은 강사가 밝히는 버크만 진단의 의도와 목적을 들으며 눈을 반짝였다. 강연이 있기 2주 전 200여 개가 넘는 방대한 문항을 체크한 결과, 대인관계와 업무방식에 대한 개인별 리포트가 완성됐다. 조금은 복잡할 수 있는 분석 리포트 항목에 대한 강사의 설명이 이어지자, "혈액형도 MBTI도 믿지 않았는데, 이건 너무 제 얘기잖아요!"라며 여기저기 놀라움과 감탄이 터져 나왔다. 이번 프로그램 참여를 신청한 이희석 파트장도 결과가 흥미롭다는 눈치다.





"평소 일을 할 때 '업무를 전달하면 우리팀은 왜 이렇게 잘 진행되지?'라는 생각을 했는데, 이번에 버크만 진단을 보니깐 [흥미] 부분과 [평소행동] 부분이 서로 유사하더라고요. 빠르고 추진력 있게, 착착 단계를 밟아 갈 수 있었던 이유를 깨달았네요. 그 외에도 표현되지 않는 숨겨진 욕구나 스트레스 행동에 대해 살펴보면서 구성원들을 더 잘 알게 된 것 같아요."

오해가 이해가 되는 그 순간

팀원들의 분석 결과를 한데 모아 보자, 공통된 특징들이 눈에 띄었다. 일상의 에너지원이자 스트레스 해소법이 될 수 있는 [흥미] 파트에서 <기술> 점수가 평균 89점으로 높게 나온 것. 손으로 무언가를 조작하고 만들기를 좋아하며 가시적으로 결과가 나올 때 행복감을 느끼기 때문에 업무적으로 관련성이 있는 일을 선택했을 확률도 높았다. 참여자 중 몇몇은 실제로 이케아 가구를 조립하는 것을 즐긴다고 대답하기도 했다.

"팀 내에서 [흥미]가 같은 컬러를 가진 사람이 함께 있으면 훨씬 더 소통하기가 편합니다. 흥미는 내가 잘하고 못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어요. 내가 무엇을 했을 때 행복하고 좋은지에 포커스를 맞춰야 합니다. **[흥미]란 항목은 팀으로 봤을 때는 소통의 길잡이로, 개인적으로는 스트레스 상황을 해소하는 방법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이어진 [평소행동] 분석 결과로는 인간관계의 근본적인 실마리를 풀 수 있는 힌트가 담겨 있었다. 한 사람이 갖고 있는 기질은 무엇인지 모르지만 "OO하는 사람처럼 보여진다"는 것이 [평소행동]의 개념이다. 공무팀은 이 항목에서 빨간색과 파란색이 주를 이뤘는데, 빨간색은 결단력과 문제 해결 능력이 뛰어난 '에너자이저'처럼 보이는 사람이고, 파란색은 '공감하며 심사숙고하는 사람'처럼 보이는 유형이다.

"'OO하게 보여진다'는 것은 조금 달리 생각해 보면 그렇게 보이는 사람으로 오해를 불러 일으킬 수 있다는 거예요. 가령 파란색의 심사숙고하는 사람처럼 보여지는 것이 누군가에게는 자칫 소심하고, 답답한 사람으로

오해를 살 수도 있다는 거죠. 여기서 개인별로 중요한 것은 오해가 커지지 않게 나만의 '대응전략'을 세워야 합니다. [평소행동]에서 파란색이 나온 사람은 오해를 사지 않도록 보색이 되는 빨간색의 추진력과 속도감을 가져와 나에게 가장 없는 것을 보완하는 것입니다."





개인별 대응전략만큼 중요한 것은 버크만 진단과 같은 프로그램을 통해 다름을 이해하고 그 차이를 가진 사람을 '이해의 눈으로 긍정적으로 바라봐야 한다'는 것이다. 오해가 이해가 되는 순간이다. 실전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욕구] 파트에서는 업무할 때 나를 사람들이 이렇게 대해줬으면 하는 바람에 대해 적어보고 함께 공유하며 '동료들이 이런 것들을 원했던 거구나'라고 서로를 이해해볼 수 있었다.
다른 컬러들이 모여야 시너지가 나는 법이다. 창의성이 뛰어난 파란색의 팀원이 아이디어를 내면 일사천리인 빨강색의 동료가 일을 추진하고, 매뉴얼을 좋아하는 노란색 팀원이 시스템을 만든 후, 사람들과의 소통이 체질인 초록색 동료가 주변에 내용을 전파하는 것이다. 조직 내에는 모두가 다양하게 있어야 진정한 '원팀'이라고 볼 수 있다.

Mini interview



이희석 파트장
팀원들이 보편적으로 함께 갖고 있는 모습도 있고, 디테일하게 들어가면 또 다른 점들도 있어서 깊이 있게 알 수 있었어요. 결과를 바탕으로 업무할 때 활용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차현석 책임
부서 구성원들과 함께하는 시간도 좋았는데요. 한편으로는 나를 발견하는 좋은 기회가 된 것 같아요. 자신의 부족함을 알고, 어떻게 하면 채워 나갈 수 있을지 살펴보는 의미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김현준 책임
10여 년 같이 다니며 일했던 사람들이 이렇게 표현되는 것이 신기했어요. 앞으로도 조직 내 사람이 바뀌거나 할 때 한 번씩 해보면 소통에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강인호 수석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었는지 자세히 들여다보고, 생각해 보는 것만으로도 가치 있는 시간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오열희 사원
여러 사람이 다른 기준을 갖고 있다는 걸 알고는 있었지만 그래프로 한층 더 명확하게 보니까 확실히 알 수 있었어요.



김태홍 책임
혈액형과 MBTI! 모두 안 믿었는데 버크만 진단으로 분석된 데이터를 보면서 정말 많이 도움이 된 것 같아요.



박병규 파트장
바쁜 일 처리 때문에 직원들이 프로그램을 들으면서도 중간중간 나가는 모습이 안타까웠어요. 집중해서 교육받을 수 있는 기회가 많았으며 합니다. 1박 2일도 좋고요~



이승민 선임
처음에 설문조사 할 때는 너무 항목이 많아서 대충 체크한 것 같았는데 결과가 저랑 너무 똑같아서 놀랐습니다. 업무할 때 오늘 알게 된 성향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새해 초심을 북돋우는 필수템

2025년의 시작과 함께 야심 차게 세운 계획들이 작심삼일로 끝나지 않도록 장비의 도움을 받아보는 것도 방법이다! 때로는 나태함에 일격을 가해주기도 하고, 잘할 수 있다며 동기부여를 해주는 참신한 아이템을 만나보자.



짜증 나던 알람은 그만!
뇌를 깨우는 상쾌한 아침 루틴
인공태양 알람시계

미라클모닝을 꿈꿨지만 1월부터 다시금 프로 지각러가 된 당신! 유독 아침잠이 많아 출근이 고달프다면 침대맡에 인공태양 알람시계를 두는 것을 추천한다. 천지개벽 수준의 시끄러운 알람을 듣고도 다시 잠들어 버리는데, 빛의 세기로 과연 깨울 수 있을까란 의구심이 들 수 있다. 하지만 바로 코 앞에서 태양이 떠오르는 데 일어나지 않기도 쉽지 않을 터!

기상하기 10~30분 전으로 타이머를 맞추면 일출 시뮬레이션이 활성화되면서 자연 일출보다는 낮은 수준의 빛이 먼저 몸을 천천히 깨운다. 이른 아침 시간, 평소보다 더 빛에 민감한 눈의 피로를 최소화할 수 있으며, 일출의 붉은 빛으로 시작해 대낮의 밝은 빛에 이르면 신체가 자연스럽게 아침을 인지하고 깨어나게 된다. 갑작스럽게 울리는 알람으로 뇌에 스트레스를 줬던 아침이 아니라, 눈부심 없는 자연광 방식으로 하루를 상쾌하게 시작할 수 있다.

좋은 습관 만들기
신나게 긁으면서 동기부여
스크래치 습관 복권

즉석복권을 보면 숨어 있는 당첨금을 보기 위해 서둘러 긁게 된다. 이렇게 학습된 반사신경을 이용해 동기부여를 일으키는 '습관복권'이 갓생들에게 인기다. **일주일, 한 달, 일 년 단위로 복권이 제작되어 있어 자신이 만들어 나가고 싶은 습관에 맞춰 선택하면 된다.** 기간을 설정하고 이루고자 하는 습관을 적은 후, 성공할 때마다 한 칸씩 긁으면 뒤에 귀여운 아이콘이 등장한다. 자신에게 보상해 주는 주기도 체크되어 있어 제대로 동기부여를 할 수 있다. 복권을 긁으며 변화된 자신을 발견하는 설렘을 체험해 보길!



매일 뼈 때리는 한마디
하루가 모여 인생이 된다

자기 계발 일력

아프리카 속담에 '노인 한 명이 죽는 것은 도서관 하나가 불타는 것과 같다'는 말이 있다. 수많은 경험을 한 사람은 방대한 지혜의 보고, 그 자체이다. 그렇기 때문에 때로는 누군가의 한마디가 발상의 전환을 일으키기도 하고, 인생의 방향을 바꾸기도 한다. **자기관리와 동기부여를 대표하는 인물들의 말을 담아 만든 일력은 한 장씩 넘길 때마다 새로운 관점을 제시해 준다.** 1월 한 달이 지나버려서 달력을 사는 것이 의미 없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일력은 요일이 없기 때문에 몇 년을 써도 무관하다. 게으름과 타협하고 싶은 우리에게 자기계발 일력은 매일같이 촌철살인의 메시지를 던진다.



동기부여 전문가 애덤 그랜트의 일력

자기계발 분야의 선구자 데일 카네기의 일력

시간 잡아먹는 귀신
도파민 중독에서 벗어나!

스마트폰 금욕상자

인스타그램에 들어가 끊임없이 릴스 스크롤을 내리다 보면 어느덧 1시간이 훌쩍 지나 있다. 마땅히 살 것도 없으면서 온라인 쇼핑몰에 들어가 장바구니를 채우는가 하면 거북목이 되는지도 모르고 유튜브 삼매경에 빠지기도 하는 우리들! 새해에는 책도 읽고 홈트레이닝도 하겠다고 마음먹었지만 스마트폰의 무한 굴레에 빠져 허송세월을 보내기 일쑤다!

스스로의 의지로는 멈출 수 없다면 스마트폰 금욕상자의 도움을 받아보자. **휴대전화를 넣고 한 번 잠그면 설정한 시간이 지나기 전까지 절대로 열리지 않는다.** 1분부터 10일까지 타이머 설정은 자유롭다. 처음부터 길게 시간을 설정하기 보다 30분부터 차근차근 늘려가는 것이 방법이다.

스마트폰 중독 테스트

- ◯ 스마트폰이 없으면 손이 떨리거나 불안하다
- ◯ 스마트폰을 잃어버리면 친구를 잃은 느낌이다
- ◯ 하루 2시간 이상 스마트폰을 쓴다
- ◯ 스마트폰에 설치한 앱이 30개 이상이고 대부분 사용한다
- ◯ 화장실에 스마트폰을 가지고 간다
- ◯ 운전 중에도 틈틈이 스마트폰을 검색한다
- ◯ 스마트폰 글자 쓰는 속도가 남들보다 빠르다
- ◯ 식사 중에도 스마트폰 소리가 들리면 즉시 달려간다
- ◯ 스마트폰을 보물 1호라고 여긴다
- ◯ 스마트폰 때문에 늦게 잔다

0~3개 정상 | 4~6개 중독 초기 | 7~10개 중독



STATION 1

TIRE TECH	2050문화多방	밥한끼 프로젝트
24	28	32

NEXEN CSR 36
내돈내산 42

2025년을 좀 더 활기차게 열 수 있는 소식을 준비했습니다.
‘배움이 정답’이라는 타이어테크 주안점의 긍정 에너지와
세대별 각기 다른 월동 준비와 겨울송 플레이리스트,
프리미엄 도시락으로 동료애를 다진 점심시간을 만나보세요.

또한, 넥센인들의 선한 영향력을 엿볼 수 있는 농촌 일손 돕기부터
연탄 나눔, 김장 봉사까지 마음 따뜻해지는 현장을 함께 하세요~
이외에도 넥센인들이 직접 쓰고 추천하는 스킨케어 제품까지
알차게 준비했습니다.

Text. 편집실 **Photo.** 김정호

배움에 대한 갈증으로 내일의 가능성을 꽃 피우다!

타이어테크 주안점

순위를 가르는 경주에서 후발로 뛰기 시작했다면 보통 조급해지기 마련이다. 하지만 선두의 페이스를 분석해 과감히 승부수를 띄워 추월하는 역전의 명수도 있다. 20여 년 타이어 전문가로 한길을 걸어온 타이어테크 주안점 고봉영 점장이 바로 그러한 플레이어다. 타 브랜드가 터줏대감으로 자리잡고 있는 지역에서 새롭게 출사표를 던진 그는 "후발주자라서 더 도전적일 수 있다"라고 당당히 포부를 밝혔다.

멈추지 않는 도전, Step by step!

지난 11월에 오픈한 주안점을 풋풋한 두달둥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곳의 진정한 출발점은 2006년으로 거슬러 올라가야 한다. 당시 제주도에서 타이어 사업을 시작한 허상영 대표는 비즈니스 안목과 운영 노하우를 키워가며, 끊임없이 육지 진출을 시도했고 2024년 드디어 인천에서 그 꿈을 이뤘다. 메가시티로 성장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한 인천에서 타이어테크 부평점, 청천점에 이어 주안점까지, 과감히 도전한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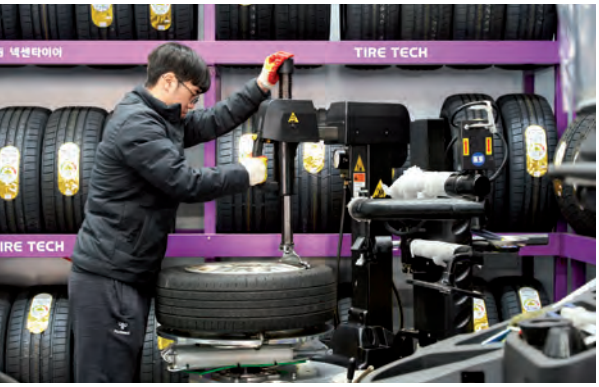
오랫동안 허 대표와 합을 맞춰 온 고대협 관리부장은 지난해 먼저 오픈한 부평점과 청천점이 구도심을 기반으로 한 것과 달리 주안점은 신도시와 구도심의 접점에 위치해 있으며 재개발로 급변하고 있는 지역이라 대리점 운영에 베테랑급 점장이 필요했다. 변화에 빠르게 대처하고 판단할 수 있는 능력자를 찾던 중, 주변의 추천을 통해 고봉영 점장을 스카우트하게 됐다. 이미 일산에서 넥센타이어 매장을 수년간 이끌어온 적임자였다.



(왼쪽부터) 윤승원 사원, 박규태 사원, 고봉영 점장, 고대협 관리부장, 천겨울 사원









"서울 인근에 위치한 인천이 성장 규모가 커질 수 있는 시장임은 분명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좋은 외부적 요인이 있어도, 내부적 요인인 '사람'이 없으면 사업 자체가 진행이 어렵습니다. 고봉영 점장과 같은 인재를 만난 것은 절묘한 타이밍이었던 것 같아요. 또한 현재 인천 내 3개의 대리점이 있기 때문에 서로 벤치마킹할 수 있도록 순환 근무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어요. 직원들이 길게는 한 달, 짧게는 일주일 동안 다른 대리점에 출근해서 타깃층, 시설 및 기기 규모, 고객 관리 방식 등의 차이점을 직접 경험해 보는 것이죠. 자연스럽게 대리점에 필요한 개선 사항에 대해 생각하고 함께 논의하는 시간을 갖게 돼요."

파격적인 순환 근무 아이디어를 누구보다 환영한 것은 고봉영 점장이다. 그는 "배움이 있기에 수십 년 해온 일이 여전히 즐겁다"며 행복한 워커홀릭에 빠져 있다. 직원들을 향한 진심 어린 조언의 단골 주제 역시 '배움의 중요성'에 대한 것이다.

돌파구를 찾는 재미, 차별화의 원동력

고봉영 점장의 전공은 '타이어'였기 때문에 누구보다 제품에 대한 이해도가 높았지만 차량 경정비는 처음부터 다시 개척해야 할 영역이었다. 모르는 분야를 장애물로 여기기보다 정복해야 할 목표라고 생각한 고봉영 점장은 배움을 통해 제2의 전성기를 맞은 셈이다. 여전히 새로운 차량, 점검 방법 등에 대해 공부를 게을리하지 않는 그의 노력 덕분에 주안점을 찾는 고객들은 제대로 ONE STOP 서비스를 받고 있다.

"타이어의 평균 수명이 2~3년 정도 되기 때문에 단순 판매만으로는 지속적이고 정기적인 수익을 보전하기 어려워요. 방문 차량 상태를 꼼꼼히 살피고 기본적인 경정비를 깔끔하게 처리했을 때 재입차 가능성이 높아지죠. 그러기 위해서는 차량에 대해 잘 알고 있어야 돼요. 전문적인 모습이 고객 신뢰를 쌓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간단히 손볼 수 없는 정비의 경우 공업사 예약까지 처리해드려요. 타이어 교체하러 주안점에 가면 간단



타이어테크 주안점
인천 미추홀구 인주대로434번길 3 1층





한 경정비부터 공업사 연결까지 한 번에 처리되니까 고객 입장에서는 시간 절약에 대한 만족감이 크세요."

마케팅에 있어서도 차별화를 하기 위해 '당근마켓'과 '네이버' 플랫폼을 이용해 홍보를 활발히 하고 있다. 기존에 하던 홍보 방법은 아니기 때문에 고봉영 점장은 좀 더 효과적으로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찾아보고 반영하며 매일 개선 중이다. 고객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타이어 가격 경쟁력과 전문적인 경정비 등을 온라인 플랫폼에 강조한 지 한 달여가 지나자 신규 고객들의 숫자가 늘기 시작했다. 휴대전화로 문의 알람이 뜨면 즉각적으로 소통했던 것도 고객 유치에 한몫했다. 그렇게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주안점을 찾게 된 고객 비율은 무려 70%에 달한다. 2025년에는 인천에서 주안점을 판매 1위로 만들겠다는 고봉영 점장의 포부가 현실로 이뤄지길 기대해 본다.

겨울철 타이어 & 차량 관리법



적정 공기압보다 10% 높게 주입

겨울철에는 기온이 낮아져 공기가 수축되는 현상이 있다. 공기압이 낮아져 평균보다 조금 높게 채우기!



결빙 방지를 위한 워셔액 교체

추운 날씨에 얼 수 있는 일반 워셔액 대신 어는 점이 낮은 겨울용 워셔액을 사용해 영하권 날씨에도 문제없게 준비!



겨울철 배터리 방전 관리 필수

기온이 낮기 때문에 배터리 성능이 저하되거나 방전될 수 있다. 실외 주차 시 햇볕이 드는 곳에 하고, 장기간 주차의 경우, 주 1회 10분 이상은 차량을 운행하도록 한다.

월동준비!
세대별 겨울나기도 다를까요?

설문기간: 12월 11일~12일
참여자: 239명

추위도 막을 수 없어!
겨울에 떠나는 여행은?
(중복 선택)

노곤노곤 피곤 잡으러
온천여행 29%

인간도 동물!
방구석에서 겨울잠 모드 22%

비행기 타고 따뜻한
동남아로~ 17%

설원을 가르며
스키장 GO 16%

설경이 펼쳐지는
겨울 등반 12%

기타 4%

마냥 쉬고 싶은 직장인의 마음은
세대초월, 시대초월, 국경초월!
20~50대 가릴 것 없이
'쉼'에 대한 끝없는 열망!



숯가마와 3초 삼겹살
신미진

집이 최고!
아무생각 없이 꿈나라로~
박상연

겨울에만 볼 수 있는 설산
(한라산) 등반
오슬기

가족과 함께 떠나는
마음 따뜻한 여행
김태형

겨울바다 보기
전원석

설중 캠핑
빈현지

한파를 뚫고 가는 출근길!
필수 장착템은?
(중복 선택)



목이 따뜻해야지!
목도리 27%

모든 세대가 많이 꼽은 목도리! 실제로 목도리는 체감온도를 5도 이상 상승시키는 효과가 있다. 또한 목디스크 예방에도 효과적! 추운 날씨에 야외활동을 하게 되면 몸에서 나오는 열을 보호하기 위해 자연스레 목과 어깨를 움츠리는 자세를 취하기 때문이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롱패딩 25%

뼈가 시려서
기능성 내복 20%

배가 뜨듯 하려면
경량 패딩 조끼 12%

멋은 포기 못해
캐시미어 코트 5%

5%의 대다수는 20대! 역시 젊음이 좋기는 좋다!

기타 4%

비니에 귀마개
정우영

스마트폰 터치 장갑
박신해

(상남자) 이어폰 하면 충분
성윤석

'겨울아, 너가 암만 추워봐라. 그래도 난 출근한다.'라는 정신력
박상연

기모스타킹
장하리

멋부리다가 얼어 죽음!
필파워 800이상 구스다운
김종호

엉뜨가 가능한 지하철
김태형

옷을 여러벌 입음으로 어려운 경제에 소비를 줄임
정중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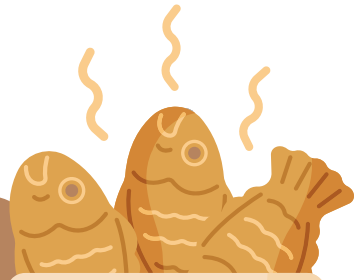
패션과 따뜻함을 동시에!
바라클라바
남현지



요즘 가장 핫한 겨울 패션 아이템!

찬바람 불 때
꼭 먹어야 하는 겨울 간식은?
(중복 선택)

꼬리부터? 머리부터?
붕어빵 33%



20대의 전폭적 지지! 슈크림 붕어빵부터 아이스크림 들어간 붕어빵, 피자 붕어빵까지 속 재료의 휘황찬란한 변신이 인기 비결?

뜨끈한
길거리 어묵 꼬치 27%



40~50대에 압도적 지지! 이제는 많이 자취를 감춘 포장마차에 대한 향수인가~

달콤 쫀득한
호떡 13%

호호 불어 먹는
호빵 13%

클래식이 좋아!
군밤 &
군고구마 11%



기타 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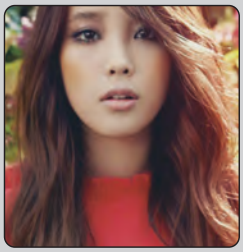
추울 때 먹는
아이스크림이 별미
김재영

물놀이&겨울엔
무조건 육개장
사발면 아닙니꽈
전재갑

아이스 아메리카노(얼죽아)
이명수

넥센인들이 뽑은 세대별 겨울 SONG

20대



아이유 <미리 메리 크리스마스>

20대 넥센인이 가장 사랑한 아이유의 <미리 메리 크리스마스>! 노래가 나온 지 10년이 넘었지만 20대에게 학창 시절 듣던 향수를 불러 일으킨 것이 아닐까?



EXO <첫눈>



자이언티 <눈>



정승환 <눈사람>



태티서 <dear santa>

30대



터보 <White Love>

30대 넥센인의 겨울송 원픽은 '터보'! 앨범 커버 디자인부터 남다르다. 겨울 노래인 데도 불타는 모닥불 이미지로 강렬함을 남겼다. 스키장에서 무한 플레이 했던 노래들!



터보 <회상>



김진표 <로맨틱겨울>



컨츄리 꼬꼬 <Happy Christmas>



SG워너비&브아걸 <Must Have Love>

40대



미스터투 <하얀 겨울>

40대 넥센인들의 겨울 노래 플레이리스트에는 연륜(?)이 느껴진다. 미스터투의 <하얀 겨울>이 흘러나오면 어느새 바로 타임머신을 타고 20대로 돌아가는 신비로운 경험을 하게 된다.



DJ DOC <겨울이야기>



푸른하늘 <겨울바다>



조관우 <겨울이야기>



김민종 <하얀 그리움>

50대



거미 <눈꽃>
그 겨울 바람이 분다 OST

50대 넥센인의 크리스마스 향수를 불러일으키는 반가운 Wham!(왬!)과 머라이어 캐리의 캐롤! 그 이후에 감성이 충만해진 지천명들은 드라마 OST로 겨울을 기억하고 있다.



이종용 <겨울아이>



Wham! <Last Christma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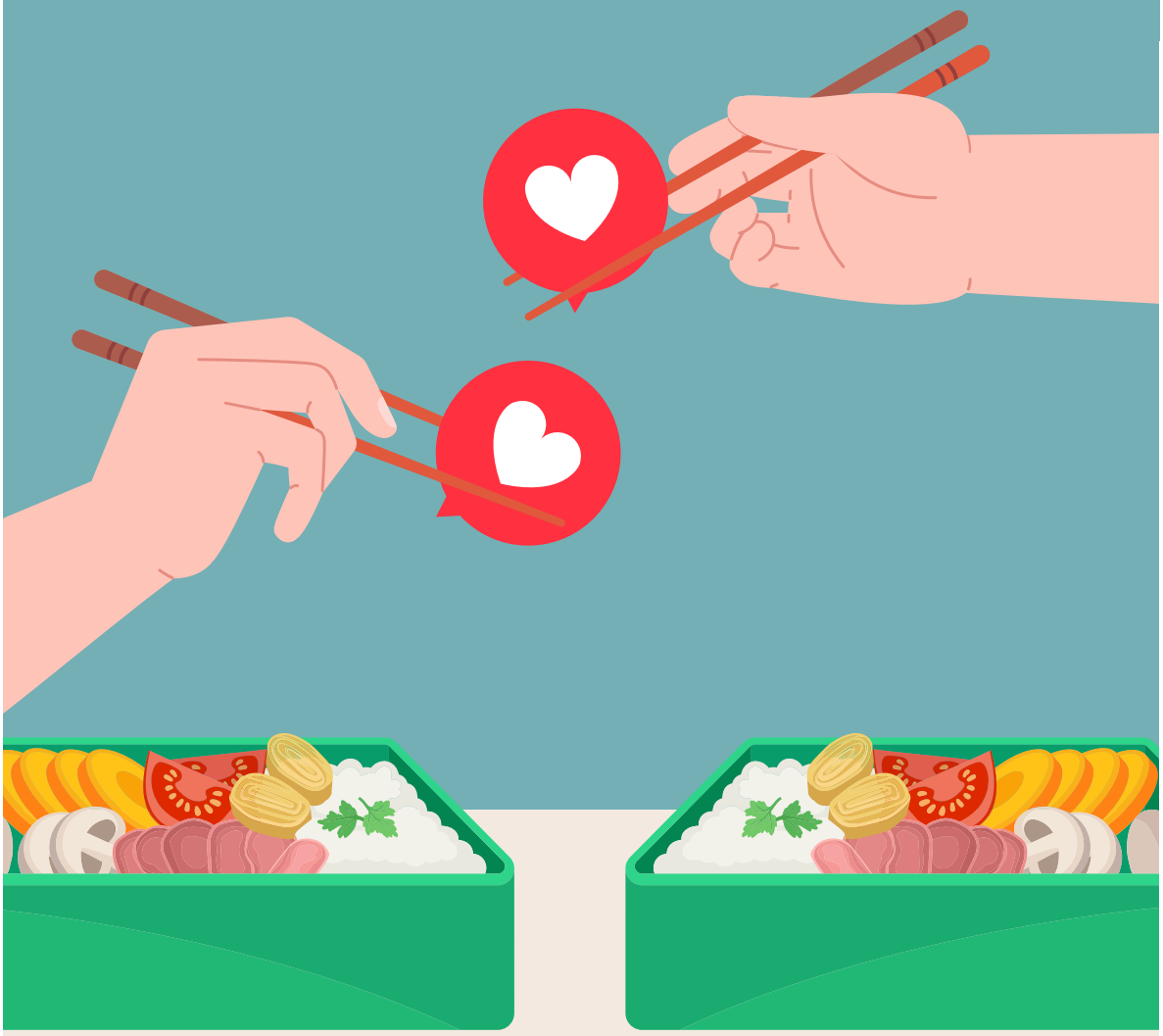
백예린 <다시 난, 여기>



머라이어 캐리 <All I want for Christmas is you>

오늘 우리 밥 한번 먹을까요? 도시락은 소통을 싣고~

2025년을 맞아 사보 <헬로우 넥센>이 맛있는 소통 이벤트를 준비했습니다. 점심시간을 틈타, 동료와 특별한 식사를 하며 돈독해질 수 있도록 '프리미엄급 도시락'을 배달해 드렸어요. 장어와 전복 등으로 보양까지 챙긴 도시락을 먹으며 어떤 추억을 만들었을지 지금 만나볼까요?



멘토 멘티였던 소중한 인연으로~



밥 한끼 프로젝트를 신청한 이유

신입 시절 입사한 지 얼마 안 돼 멘토링 프로그램에 멘티로 참여하면서 좋은 기운을 받아 회사 생활을 할 수 있었어요. 그런 경험을 갖고 있던 제가 이번에는 반대로 신규 입사자인 최민우 사원의 멘토로 3개월간 함께 했습니다. 인생 선배로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었으면 했어요. 멘토/멘티 활동이 끝나고 나니 무언가 허전했는데, '밥 한끼 프로젝트'로 허한 마음도 채우고, 멘티였던 동료와 더 좋은 사이로 나아갈 수 있는 기회가 될 것 같아 신청했어요.

한끼 파트너와의 에피소드 대방출

멘토/멘티 활동 중에 엑티비티를 해야 했는데, 최민우 사원이 스쿠버다이빙도 하고 물을 좋아하는 것 같아 제가 부산에서 서핑을 해보는 건 어떨지 제안을 했어요. 날을 잡아 서핑을 하러 갔는데 저도 몇 년 전에 해봤던 거고, 최민우 사원은 처음이라 수도 없이 넘어졌어요. 서로 보며 얼마나 웃었는지 몰라요! '오늘 안에 서핑이란 것을 할 수 있을까' 했는데 마칠 때쯤 파도도 타고 재미있는 시간을 보냈습니다. 잊지 못할 여름이었어요. 기회가 된다면 다시 가보고 싶네요.

MISSION
우정 돈독 손하트를 완성하라!



TO.
멘티 최민우 사원

"맡은 분야는 다르지만 분명히 서로 도울 수 있는 것들이 있을 거라 생각해요. 회사 일이든 개인적인 일이든 상관없이 서로에게 'PLUS'가 되는 사람이 되도록 해요! 이렇게 같은 회사에서 멘토/멘티였다는 것은 더욱 소중한 인연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좋은 추억 많이 만들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밖에선 행님이라고 부르라~"

동갑내기 소울메이트의 유쾌한 런치타임



밥 한끼 프로젝트를 신청한 이유

제가 영업에 있을 때 업무 파트너로 도움을 많이 받았던 공급계획팀 김영빈 선임과 같이 식사하고 싶었어요. 영빈 선임이 최근에 이사한다고 바빠서 밥도 잘 못 챙겨 먹고 다닐 것 같아 보양식으로 에너지 충전하려고 신청했어요. 퇴근 후, 저녁에 술은 같이 마셨는데 막상 점심에 밥을 먹은 적은 별로 없더라고요. 영빈 선임은 겉은 차갑지만(?) 실제로는 굉장히 마음이 따듯한 사람입니다. 나이도 동갑이고 코드도 잘 맞아 평소에도 대화가 잘 통하는데 운동까지 같이 하면서 땀을 흘린 사이라 그런지 친구보다 더 친해졌어요.



MISSION
우정 돈독 손하트를 완성하라!



TO.
특별한 존재
양지원 선임

"맛있는 점심을 먹으면서 수다도 떨고, 평소 잘 하지도 않는 손하트 인증 사진까지 찍으며 정말 즐거웠어요. 역시 밥 한끼라도 함께 먹는 것이 친목을 다지는 데에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인 것 같습니다. 저에게 양지원 선임은 단순한 직장 동료라고 정의하기에는 더 가깝고 특별한 존재입니다. 동갑이지만 엄연히 1년 차이가 나는 선후배 사이인데…… 버릇없는 후배의 깐족거림에도 즐겁게 받아주는 따뜻한 선배~ 공통점보다는 차이점이 더 많지만, 배려심이 깊고 제 마음을 잘 헤아리는 신기한 지원 선임! 이런 자리 준비해 줘서 고마워요."

서로 배울 것 투성이!
동기가 좋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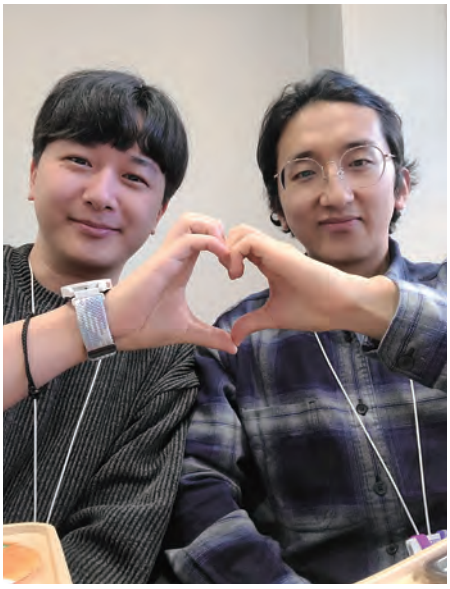
밥 한끼 프로젝트를 신청한 이유

지난해 5월 함께 입사한 동일 BS 동기임에도 불구하고 담당 업무로 인해 업무 공간이 서로 떨어져 있기도 하고 점심시간도 보통 각자의 팀원들과 먹다 보니까 대화할 기회를 갖기가 어려웠어요. 이번 프로젝트를 통해 밥 한끼 먹으며 이야기하고 싶었어요. 재료연구팀 권재원 연구원은 제가 연구적으로 궁금증이 있을 때마다 종종 찾아가 조언을 구하거나 혹은 아이디어를 편하게 공유할 수 있는 소중한 동료입니다.

한끼 파트너와의 에피소드 대방출

신입사원으로서 OJT팀 프로젝트를 함께 진행했는데요. 프로젝트 주제가 당시 익숙하지 못한 업무 관련 내용이고 팀 프로젝트이다 보니 모두가 어려움을 겪었어요. 이때 솔선수범하며 팀 프로젝트에서 맡은 업무를 훌륭하게 수행하고, 힘든 일을 담당하며 배려하는 모습이 인상 깊었답니다.

MISSION
우정 돈독 손하트를
완성하라!



"실험실에서 혼자 전전긍긍하지 않고 다른 선배에게 물어보기 어려운 질문이나 고충이 있을 때 허심탄회하게 얘기하자! 종종 점심시간에 산책 콜?!"

이벤트 신청자
원료개발팀 김형중 연구원



"형중 형 덕분에 내향적인 제가 가끔이나마 친목 활동을 즐길 수 있게 된 것 같아요. 앞으로 다이어트 무사히 성공해서 입사 초기 슬림했던 리즈 시절로 돌아오길 기원합니다."

한끼 파트너
재료연구팀 권재원 연구원

Text. 편집실 Photo. 임동욱



나눔의 손길로 따뜻한 연말연시
사랑의 연탄 나눔 봉사 활동

마곡 임직원들이 연말을 맞아 난방 취약 가정을 위해 자발적으로 연탄 나눔 봉사 활동에 참여했다. 지난 12월 5일, 쌀쌀한 날씨에도 불구하고 임직원 20명이 모여 영등포 일대 연탄 사용 가구 중 3가구에 각 400장씩, 총 1,200장의 연탄을 날랐다. 사단법인 '따뜻한 한반도 사랑의 연탄나눔운동'을 통해 넥센타이어가 후원한 연탄을 구성원들이 직접 전달한 것도 어느덧 5년째이다.

손수레조차 들어갈 수 없는 좁은 골목길이라 봉사자들은 양손에 연탄을 두 장씩 들고 날라야 했다. 호기롭게 연탄을 옮기던 임직원들은 곧 7.2kg의 무게를 실감하기 시작했다. 고된 작업이 반복됐지만 어르신들이 따뜻하게 생활하실 수 있다는 생각에 봉사자들은 노동요까지 흥얼거리며 밝은 분위기를 끝까지 이어갔다.

두 시간 남짓 쉼 없이 연탄을 나르는 사이, 참여자들의 이마에는 송골송골 땀이 맺혔다. "나눔을 실천할 때마다 오히려 얻어가는 것이 더 많다"며 한목소리를 내는 임직원들! 한파에는 하루 동안 평균 3~4장의 연탄을 사용한다고 하니, 이날 마곡 임직원들이 한 가구당 전달한 400장의 연탄으로 추운 계절을 날 수 있는 셈이다.

Mini interview



패턴디자인연구팀 이형권 선임연구원

"어느덧 3년째 참여하게 됐네요. 입사한 지 얼마 안 된 신입사원들에게 봉사 활동 참여를 많이 권하는 편이에요. 업무만 하다 보면 타 부서와 친해질 일이 없잖아요. 봉사 활동도 하고 같이 식사를 하면서 교류의 장을 넓혀보세요."



차량동역학팀 조정안 연구원

"저도 올해 두 번째 오게 됐는데요. 분명 도움을 드리러 왔는데, 갈 때는 제가 더 따뜻해지더라고요. 내가 흘린 작은 땀방울이 이웃의 겨울나기에 온기가 될 수 있다는 자체가 힐링이에요. 봉사는 남을 돕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를 회복하는 시간입니다."



글로벌법인영업2팀 장윤정 사원

"연탄 봉사 생각보다 힘들지 않습니다! 많이들 참여해 주세요. 넥센인들끼리 협력하면서 하다 보면 높게 쌓여 있던 연탄 더미가 금세 줄어들어 있어요. 힘듦 보다는 뿌듯함이 배가되는 경험이에요. 내년에는 더 많은 동료들이 함께 했으면 합니다."





Text. Photo. 문화혁신팀 유재훈 책임·YP기업문화팀 김가현 책임

마곡





마곡 임직원들과 양산공장 구성원들은 지난 11월 수확철을 맞아 과수 농가 일손 돕기에 나섰다. 해당 농가 주인들은 인력난이 극심한 시기에 농촌 현장을 방문한 넥센인의 발길에 연신 고마움을 표했다.

마곡 임직원 25명은 11월 8일 화성시의 사과 농가를 찾아 과실 수확 작업을 돕고 새참도 나눠 먹으며 '봉사 활동'으로 소통하는 기회를 마련했다.

가을철 수확맞이 농촌 일손 돕기 봉사 활동

양산공장



양산공장 봉사 참여자 14명은 11월 19일 양산 원동면 배내골을 방문해 돌배 수확에 손을 보탰다. 화창한 가을 햇살을 맞으며 제대로 영근 배를 따는 것 자체가 힐링이었다는 참여자들!

이번 참여 봉사자들은 “고령화와 일손 부족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촌 현장에 조금이나마 일손을 도울 수 있어 뜻깊었다”며 “직접 땀을 흘려보니, 결실을 거두기 위해 1년 동안 고생하신 농부의 땀방울이 대단하다”는 생각을 했다고 목소리를 모았다.



Text. Photo. CP인사지원팀 변상협 책임



따뜻한 한끼를 위한 진심이 모이다
창녕공장 배식 봉사 및 김장 나누기

소외된 이웃들이 따뜻한 연말연시를 보낼 수 있도록 창녕공장 임직원들이 봉사 활동에 참여했다. 11월 29일 창녕 문화체육관에서 열린 '노인일자리 참여자 문화활동 및 한마당 잔치'에 참석하신 800여 명 어르신들의 다과와 식사 배식을 위해 창녕공장 임직원 6명이 팔을 걷어붙였다. 배식봉사에 참여한 넥센은 "어르신들의 복지 개선을 위한 자리에 도움이 될 수 있어서 뿌듯하다"고 소감을 얘기했다.

또한 12월 2일에는 창녕공장 임직원 17명이 '2024년 사랑의 김장 나누기 행사'에 참여해 김장 및 박스 포장 봉사에 나섰다. 창녕군자원봉사협의회와 무선112 봉사단, 창녕공장 임직들은 배추 1,200포기를 손질하고, 직접 절인 후, 양념을 버무려 김장김치 300박스를 완성했다. 이웃을 위해 자발적으로 참여한 봉사자들의 마음이 담긴 김장김치는 창녕군에 거주하는 홀로 어르신, 장애인, 한부모 가족 등 어려운 이웃에게 전달됐다.





Text. 편집실

넥센인들의 피부관리!
내돈내산 믿을만한 찐 후기

춥고 건조한 겨울 날씨에 쩍쩍 갈라지는 피부로 고민이 많은 요즘! 괜찮은 스킨케어 제품을 사려고 해도 광고성 리뷰만 넘쳐나니 믿을 수가 없다. 핸드크림 하나 사려고 해도 브랜드부터 기능까지 너무 다양해 무엇을 구입해야 할지도 난감하다. 신뢰할 수 있는 것은 오직 넥센인들의 찐 후기뿐! 내돈내산 솔직한 리뷰를 가이드 삼아 피부 관리에 돌입해 보자.



REVIEW

다이소의 기적! 피지 물렀거라~

물류관리팀 **송제인 사원**



메디필 엑스트라 슈퍼 9 플러스 아크네 클렌징폼 & 모공 타이트닝 앰플

#피지개선 #모공축소

★ **모공 타이트닝 효과도 있지만, 피지 개선 효과가 완전 탁월해요!**

약도 먹고 술도 줄이며 약 1년간 노력했지만 차도가 없던 턱 여드름! 원인은 쉽게 뜨거워지는 얼굴 때문이었던 것 같아요. 열을 내리기 위해 겨울에도 선풍기 바람을 쐬고, 효과가 좋다는 연고를 많이 발라봤습니다. 병원에서 처방받은 약도 먹었지만 좀처럼 나아지지 않았어요. 그러던 피부가 드라마틱하게 개선된 순간이 있었습니다. 바로 다이소에서 구매한 화장품을 사용한 이후였어요!

STEP 1
메디필 엑스트라 슈퍼 9 플러스 아크네 클렌징폼으로 2차 세안을 하고

STEP 2
피지 개선에 도움을 주는 모공 타이트닝 앰플을 함께 사용합니다.

평소 여러 가지 화장품을 시도해 보다가 맞지 않으면 바로 사용을 중단하는 편인데, 이 제품들은 만족도가 높아 꾸준히 사용하고 있어요. 1년간 사용해 본 화장품 중 가장 효과가 좋았고, 가격까지 저렴해 마음에 쏙 듭니다. 클렌저와 앰플이 도합 8,000원! 다이소가 다이소 했죠?! 피부 고민이 있으신 분들께 적극 추천합니다. 소비요정 송제인이 강력 추천!

REVIEW

건조한 겨울, 속피부까지 촉촉하게~

윤리경영팀 **서혜정 책임**



★
워낙 리치한 크림이다 보니 아침에 바를 땐 소량만 사용

바이오더마 시카비오 포마드 리페어 크림

#속피부_개선 #촉촉함_끝판왕

저도 처음에 다른 임직원에게 추천받아서 사용하게 됐어요. 올리브영 1+1 행사할 때마다 쟁여 놓는 아이템이기도 하죠! 건조한 시기, 특히 겨울에 바르면 너무 촉촉하고 좋아요. 실내에서 히터까지 틀다 보니 아무리 많이 제품을 발라도 피부 안쪽 사방에서 잡아당기듯 갈라지는 느낌이 듭니다. 바로 피부 속건조의 문제인데, 이 제품은 그런 면이 탁월하답니다.

제형이 꾸덕꾸덕하고, 쫀쫀한 느낌의 수분크림이고, 자기 전에 듬뿍 바르고 자면 아침에 피부가 한결 촉촉하고 부드러워져 있어요. 진정 효과가 있고 제품이 순해서 영유아도 사용 가능합니다.

REVIEW

건성인들에게 적극 추천, 수분충전 끝

글로벌법인영업2팀 **장윤정 책임**



메노킨 30초 팩

#당김은_이제안녕
#비행기_건조함도_무섭지않아

★
저렴하다고
무시하시면 안됩니다.
제 동생과 남자 친구도
한번 써보더니
영업 당해서 같이
구매했다고요~!

사용법은 간단해요!

1. 스킨 혹은 로션 상관없이, 스킨케어 마지막 단계에서 얼굴에 직접 버블팩을 짭니다.
2. 문질문질 잘 문질러줘요!
3. 끝! 30초도 안 되는 시간에 피부 수분충전 완료~ 안 써보면 모른다니까요!

속겉건조 1등, 화장품 유목민 인사드립니다. 여름에도 건조함을 느낄 정도로 건성 피부를 가지고 있는데요, 그렇다 보니 속건조에 좋다는 화장품을 이것저것 시도하며 실패도 많이 겪었습니다! 그런 제가 요즘 재구매를 할 정도로 정착해 버린 화장품이 있습니다.
'메노킨 30초 버블팩'인데요. 쿠팡에서 2만 원대에 구매할 수 있는 아주 가성비 좋은 화장품입니다! 건성들에게 얼마나 좋은가 말씀드릴게요. 비행기로 장거리를 이동해야 했는데요. 모두 아시죠? 비행기 안이 얼마나 건조한지…… 그날은 공항에서 세수한 후 스킨, 에센스 없이 이 제품만 바르고 약 16시간을 버텼는데 당김이나 건조함을 전혀 느끼지 못했습니다. 세상 살면서 이런 촉촉함을 느껴 보다니~ 그냥 써보세요 여러분! 제품은 다섯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처음에는 핑크(콜라겐)를 썼고, 지금은 블루(모이스트)를 사용하고 있어요! 재구매 의사 300%입니다.

STATION 2

미래참견시점 48

AI 정복하기 52

철학하는 타이어 56

속마음 번역기 58
ISSUE 62
NEWS 78

넥센인들이 새해에는 한 뼘 더 성장할 수 있도록 색다른 영감을
줄 수 있는 다양한 인문학을 구성해 봤습니다. 지금 태어난 아이들이
살아갈 '125년에 대한 예측'과 생성형 AI를 정복하기에 필요한
'질문의 기술' 등 디지털 시대의 인류가 알아야 할 정보를 만나보세요.

또한 타이어의 스키드 마크를 통해 '기록의 가치'를 생각해 보는
철학적 사고와 회사 내 소통의 가이드가 되어 줄 '속마음 해석'을
준비했습니다. 이 외에도 넥센인의 끼를 발산한 2024 넥센타이어 복면가왕
현장과 지구 건너편 글로벌 넥센인들의 연말 파티 현장도 담았습니다.

* 콘텐츠 제공 : MIT Technology Review

오늘 태어난 당신의 아이, 어떤 미래가 기다리고 있을까?

오늘 태어난 아이에겐 평생, 아니 어쩌면 125세까지 사는 동안 지능형 디지털 에이전트가 삶의 동반자가 되어줄지도 모른다. 지능형 기계 시대 부모들은 아이가 잉태된 순간부터 다양한 방식으로 아이를 계속 지켜본다. 부모는 아기의 작은 심장 박동 소리를 듣고 임신 기간 내내 앱으로 상태를 확인하며, 소셜미디어에 아기 초음파 사진을 올린다. 즉, 오늘 태어난 아이는 탄생하기 훨씬 전부터 이미 알고리즘에 자신의 존재가 노출되어 있다는 뜻이다.

Age 0



오늘 태어난 아기는 밀레니얼 세대와 디지털 네이티브(디지털 환경에서 성장한 세대)이자 최초의 인플루언서에 해당하는 Z세대의 자녀이다. 아이의 주변에는 어디에나 카메라가 있을 것이다. 화면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보며 화면 너머에 있는 상대방에게 미소를 짓거나 손을 흔드는 법을 배우게 될 것이고, 조부모는 인터넷 영상·음성 통화 서비스인 페이스타임으로 아이에게 책을 읽어줄 것이다.

아이가 초등학교에 입학할 때가 되면 어떨까. 교육학계의 논쟁은 있지만 전문가들은 오늘 태어난 아이가 튜터나 코치 등 과외 교사의 형태로 지능형 에이전트를 처음 만나게 될 장소가 학교일 것으로 예측했다. 인공지능 튜터는 실제 과제와 증강현실 교육을 결합한 활동을 통해 아이들의 학습을 도울 것이다. 전문가들에 따르면 학생들이 학습하는 동안 눈에 잘 띄지 않는 팔찌나 스마트워치가 학생의 학습성과를 추적하고 해당 데이터를 태블릿과 동기화하여 이 데이터를 바탕으로 AI튜터가 학생의 공부를 도와줄 수도 있다.

물론 아이들이 사회적 상호작용을 통해 학습하기 때문에 기술로 인한 고립이 문제가 될 수도 있다는 우려가 있다. AI가 학습지도의 인지적인 측면을 처리할 수는 있지만, 사회적인 측면에 대해서는 확신할 수 없다는 이유이다. 아이가 정신적으로 혼란스러운 상태일 때, 지금 배가 고파서 간식이 필요하기 때문이라는 것을 과연 AI가 알아챌 수 있을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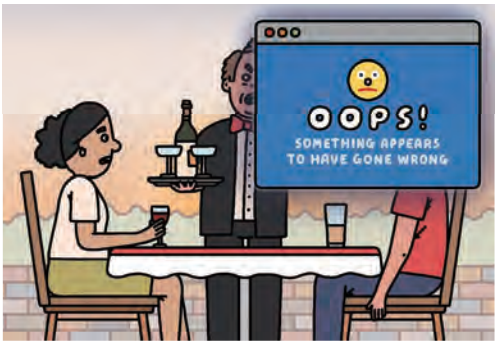
2040년
Age 16

청소년이 돼서 이동을 할 때 아이들은 학교 공부를 도와줬던 지능형 에이전트처럼 에이전트 운전자와 함께하거나, 아예 운전을 대신해 주는 새로운 기능의 에이전트가 존재할 수 있다. 가령 햄버거 가게가 가까워지면 탑승하고 있는 아이의 감자튀김 취향을 파악하여 알려줄 것이다. 또한 친구들과 소통하기를 원한다면, 지능형 에이전트가 소셜미디어 피드를 검색해서 친구들의 현재 위치를 파악하고 모임을 제안할 수도 있다.

2049년
Age 25

오늘 태어난 아이가 20대 중반의 청년이 되었다. 아이의 삶과 함께해 온 지능형 에이전트들은 이제 이 아이에 대해 매우 많은 것을 알고 있는 상태이다. 이 시점에서 사용자에게 가장 도움이 필요한 부분은 바로 사회생활과 관련된 영역이다. 보스턴 대학교 미디어과학 조교수인 캐스린 코두토는 "모든 사람이 가장 크게 걱정하는 것이 대화를 시작할 때 첫마디를 고르는 일"이라며 "AI는 대화를 시작할 때 사용할 수 있는 10가지 선택지를 제시하거나 직접 연습해 볼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다"고 예측했다. 또는 데이트 코치가 되어줄 수도 있다. 하지만 내 가상의 친구와 함께 집에 있을 수 있는데 굳이 밖에 나가서 인간관계를 위해 노력해야 할 이유를 찾지 못할 수도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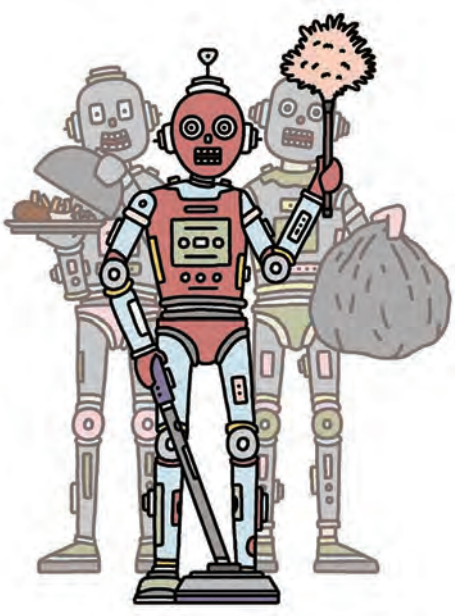
또 다른 측면에서 이들은 온라인과 카메라 앞에서 보내는 삶의 딜레마와 씨름하게 될 것이다. 전문가는 "자녀가 18살이 될 때까지 부모가 허락 없이 자신의 삶을 기록한 것에 대한 반발심으로 소셜미디어에서 탈퇴할 수도 있다"고 예측했다. 오늘 태어난 아이가 성인이 되면 개인정보 보호 및 동의에 대한 더 엄격한 규칙, 진위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더 좋은 방법, 성적인 메시지나 사진을 한 번에 없애 버릴 수 있는 버튼처럼 민감한 자료를 더 강력하게 제어할 수 있는 방법을 원하게 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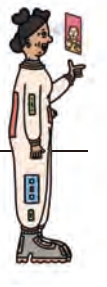


2059년
Age 35

2059년쯤 되면 오늘 태어난 아이는 이제 35세가 되어 자신의 가정을 꾸렸을 것이다. 그러나 미래의 집은 아이가 어릴 때 자란 집과는 상당히 다른 모습일 것이다. 만약 대도시에 살고 있다면 집 크기는 작을 것이다. 기후변화와 교통비용의 불확실성으로 인해 도시를 무한히 외곽으로 확장하기는 불가능하다. 그러면 집이 건축가 르코르뷔지에가 상상했던 '살기 위한 기계'가 된다. 벽이 움직이고 사물은 부풀어 오르거나 펼쳐질 수 있으며 가구는 나타나거나 표면으로 녹아들어 사라지거나 재결합될 수 있다. 필요한 컴퓨팅 파워는 모두 내장되어 있다. 전문가들은 이 미래의 집이 자동차처럼 음성이나 제스처 명령에 반응할 것으로 예측했다. 하지만 이 집은 사용자의 명령을 듣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사용자의 움직임, 위치, 온도 등 사용자를 관찰하면서 학습한 정보를 토대로 일부 결정을 자율적으로 내릴 수 있을 것이다.

이때 쯤이면 이미 자녀를 낳았을지도 모른다. 아기를 돌보며 경험할 수 있는 수면부족과도 작별했을 수도 있다. 카시트와 외골격 로봇(사람이 착용할 수 있도록 설계된 외골격 형태의 로봇 장치)을 결합한 형태인 이 기계는 기본적으로 늦은 밤에 잠에서 깬 아기를 달래주는 장치로 아기를 흔들어주고 미리 유축해 놓은 모유를 주고 기저귀를 갈고 몸을 닦아주는 기능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미래에 태어난 아기에게는 아마도 이 로봇이 태어나서 처음 경험하는 기계가 될지 모른다.





2074년
Age 5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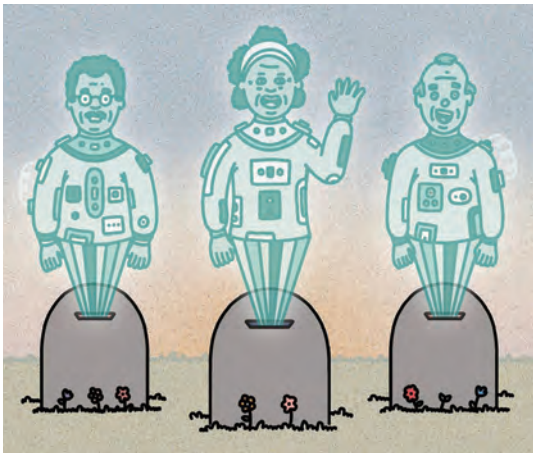
이제 오늘 태어난 아이는 50세가 되어 커리어의 정점에 서 있다. AI 자동화가 진행된 직업군에 있는 사람이라면 지금쯤 '기계의 작업을 감독하는 핵심 인력'이 되어 있을 것이다. 우리 시대에 이미 무너지고 있는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의 근무시간은 재택근무나 일하는 만큼 벌어가는 긱(고용주와 단기 계약이나 일회성 프로젝트를 기반으로 수행되는 일종의 비정규직 형태의 일) 업무 등이 확산되면서 다양한 시간대로 완전히 세분화되어 있을지도 모른다.

2074년쯤이면 사람들은 이미 데이트를 위해 AI 아바타를 사용해 본 적이 있을 것이다. 하지만 이제 가상 에이전트는 더욱 사실적인 모습으로 사용자의 목소리와 버릇까지 모방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면 AI 아바타가 우리를 대신해 회의에 참석하는 것도 가능하지 않을까?

2099년
Age 75

오늘 태어난 아이가 75세가 되어 은퇴할 즈음이 되면 지금보다 가족의 규모가 줄어들어 있을 것이며 혼자 사는 노인도 많아질 것이다. 하지만 진정한 의미로 혼자 사는 사람은 없을 수도 있다. MIT 에이지렙MA의 이채우 연구원은 "75년 후면 집 자체가 일종의 룸메이트가 되어 나와 함께 그 공간을 공유하는 존재가 될 것"이라며 "집이 우리의 감정에 반응하고 우리를 이해해 줄 수도 있다"고 예측했다. 집은 또한 사용자가 식사하고 샤워하고 화장실을 이용하는 곳이기 때문에 사용자의 건강 데이터를 수집하고 있을 것이다. 이러한 인터랙티브 홈이 거동이 불편하거나 인지적 어려움이 있는 사람들이 더 오랫동안 독립적으로 생활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거동이 불편해도 마음껏 여행이 가능할 수도 있다. 만약 사용자가 주변 환경을 마음대로 바꿀 수 있는 기계 인터페이스가 개발된다면 사용자가 정글을 생각했을 때 벽지가 정글처럼 변하고 로봇가구가 집 공간의 지형을 조정할 수 있을 것이다.





2149년
Age 125

이제 오늘 태어난 아이는 125세가 되었다.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랑하는 사람들은 디지털 대리인의 형태로 서로를 방문할 수도 있고 노인이 되어 몸이 매우 아프다면 가상 세계로 탈출하여 편안함을 느낄 수도 있을 것이다. 2149년의 사람들은 가상 불멸에 대해 생각하고 있을지도 모른다. 자신의 의식을 클라우드에 업로드하는 방식은 어떨까? 스미스칼리지의 사회학자이자 <디지털 고인>의 저자인 팀 레쿠버는 이 아이디어를 열렬히 옹호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언급했다. 이런 사람들은 나중에 인간이나 로봇의 몸으로 부활하거나 하이브 마인드(지식이나 의견을 공유하고 무비판적 화합이나 집단지성을 산출하는 개념적 실체) 또는 '우주를 여행할 수 있는 레이저 광선'의 일부로 영원히 살아가기를 바란다. 그러나 레쿠버는 특히 향후 125년 안에 그런 일이 가능할지에 대해서 회의적이다.

상상해 보는 미래의 모습이 허황된 전망이나 경고 또는 과대망상처럼 보일 수도 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의 현재가 무한한 미래를 위한 출발점에 불과하다는 사실이다. 그다음에 일어날 일은 미래 세대에게 달려 있다.

Text. 편집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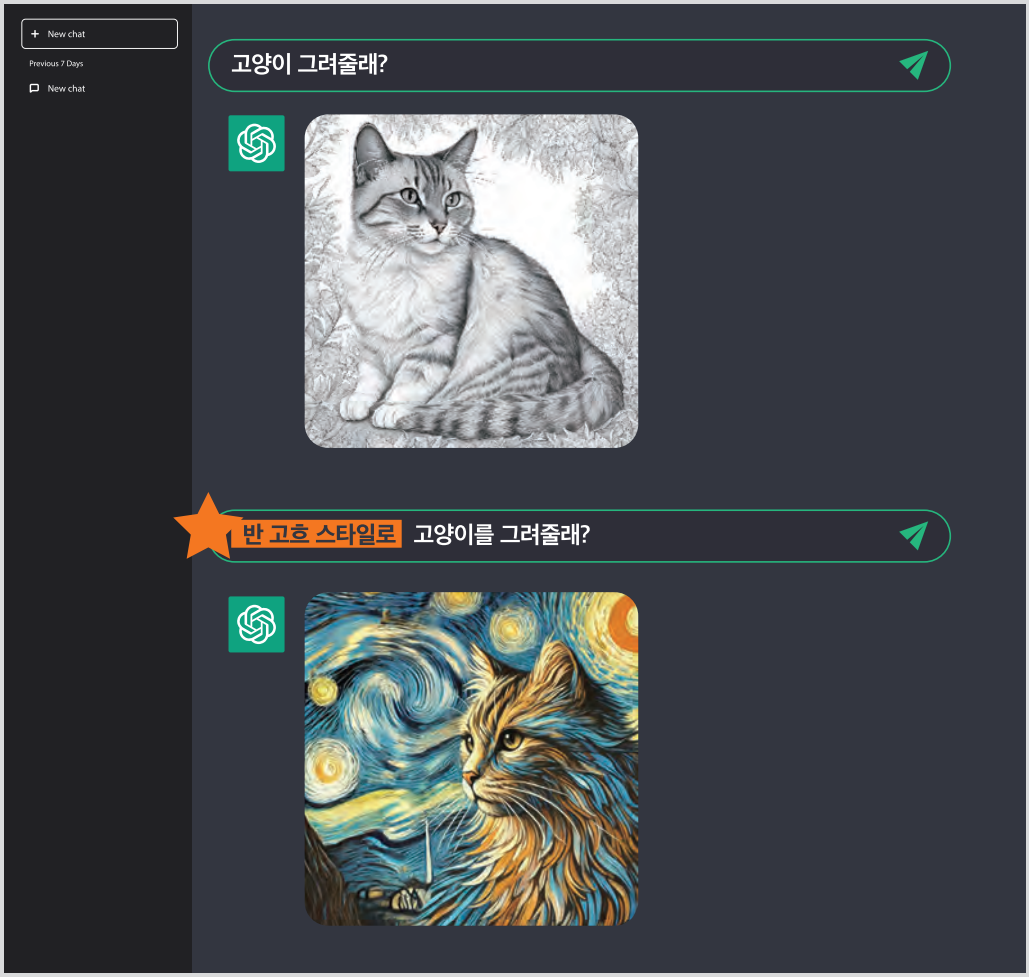
“AI야! 잘 대답할 수 있지?”
질문의 기술 편



생성형 AI로 문서 작성부터 통계 및 데이터 정리는 기본이고, 이미지 생성과 동영상 제작까지 ‘명령어’ 하나면 뚝딱이다. 하지만 ‘명령어’란 그리 간단하지 않다. ChatGPT만 봐도 그렇다. ‘질문(명령어)’하고 ‘답(결과)’을 얻는 게 전부인 프로그램이지만, 막상 쓰려고 하면 어떤 질문을 해야 할지 허둥지둥이다. 그만큼 질문이란, 생성형 AI의 본질이자 키포인트다. ‘질문의 기술’을 파헤쳐보자.

질문이 구체적이면, 결과가 명확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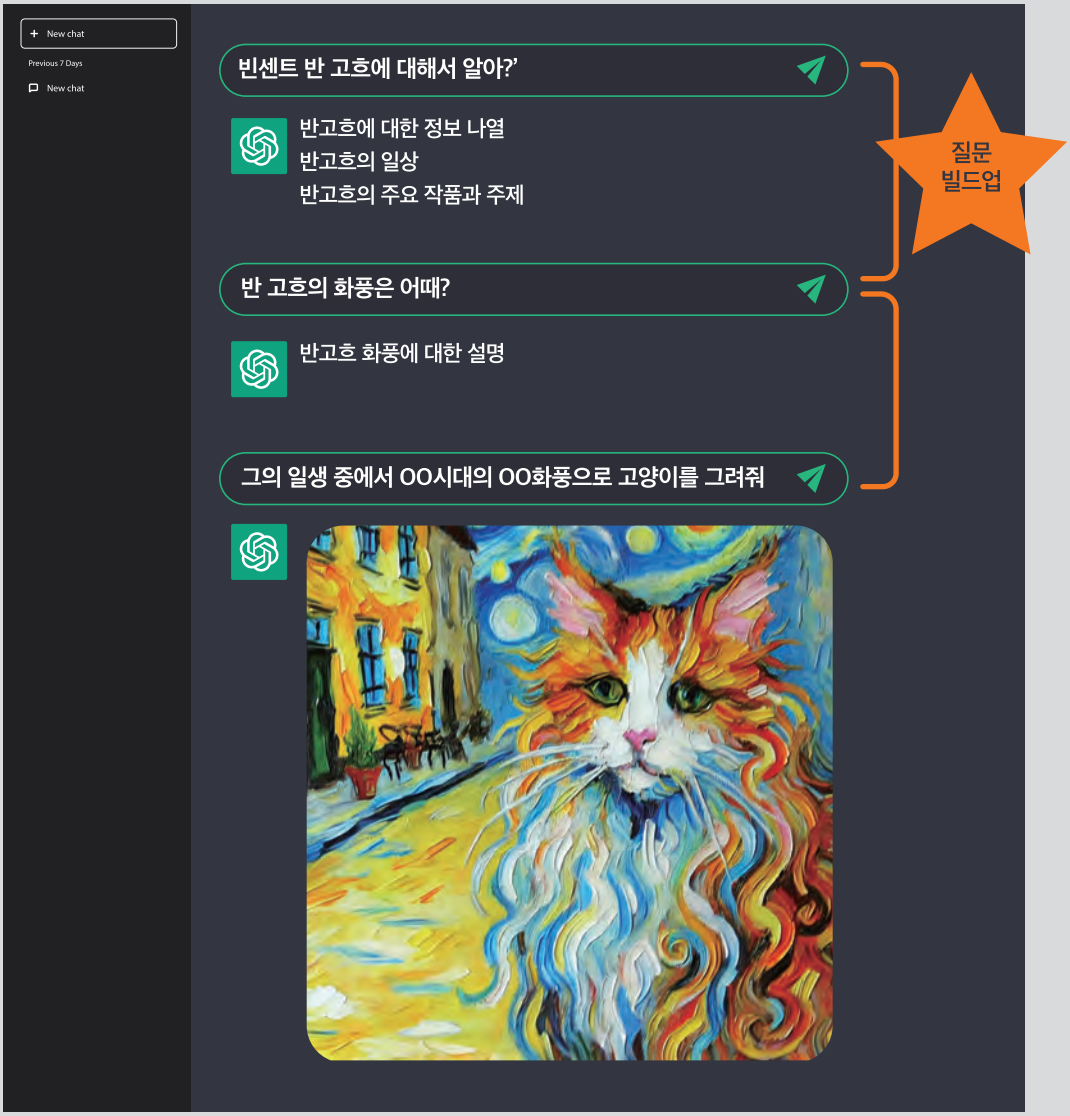
ChatGPT에 '1+1은 뭐야?'라고 질문하면 당연히 2라는 답변이 나온다. 하지만 '10+10은 덧셈, 10-10은 뺄셈, 10x10은 곱셈, 그럼 1+1은 뭐야?'라고 묻게 되면 2가 아닌, '덧셈'이라고 답한다. 똑같은 질문이라도 그 앞에 어떤 문장을 제공하느냐에 따라서 AI의 답변은 완전히 달라진다는 것.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원하는 답을 얻기 위해선 구체적인 스타일이나 사례, 예시, 규칙 등을 추가해 주는 게 좋다. 고양이 그림을 예로 들어보자.



만약 고양이 그림을 그리고 싶어서 무턱대고 '고양이 그려줘'라고 말하는 것보다 명확한 스타일을 추가했을 때, 결과는 180도 달라진다. 이렇게 간단한 텍스트 추가만으로 큰 변화를 줄 순 있지만, 그것이 자신이 원했던 결과는 아닐 수 있다. 만약 반 고흐 특유의 붓 터치와 질감을 표현해, 디테일을 더욱 살리고 싶다면 어떤 질문 기술이 필요할까?

복잡할수록 대화로 풀어내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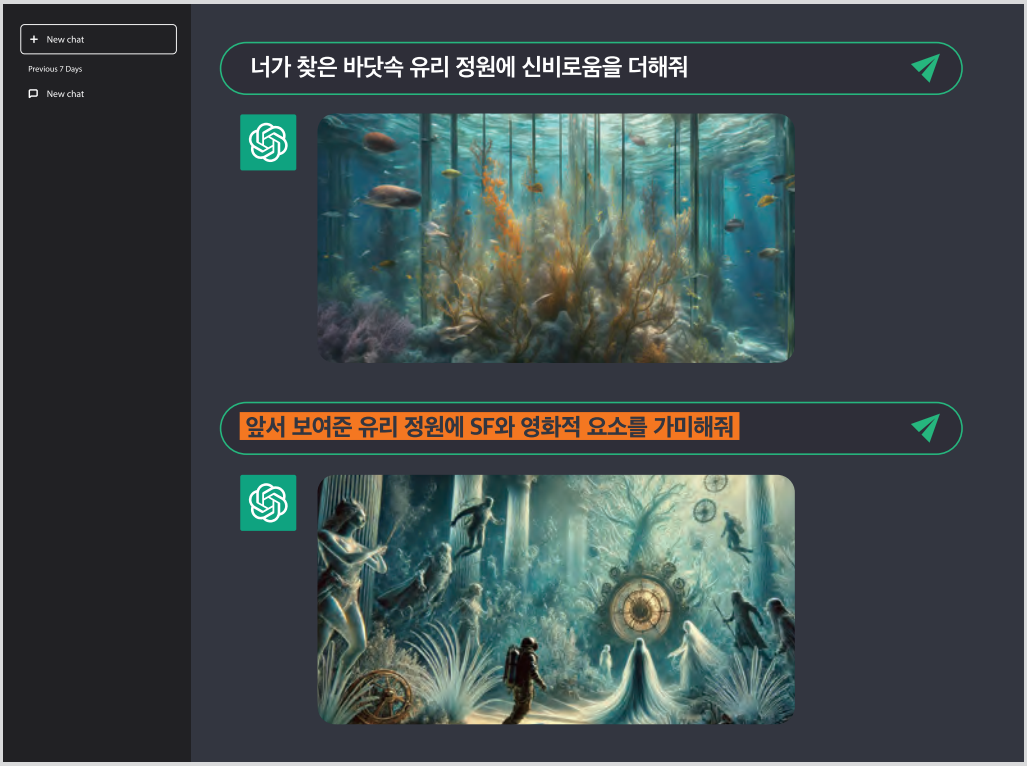
방법은 간단하다. 복잡한 작업일수록 하위 질문들을 쌓으면 된다. ChatGPT를 통해 아래 고양이 그림을 얻기 위한 질문의 방식은 달라져야 한다. '빈센트 반 고흐에 대해서 알아?'라고 물으면 AI는 고흐의 일생부터 유명 작품들과 그 작품에 대한 설명까지 답해줄 것이다. 그다음은 '반 고흐의 화풍은 어때?'라고 질문을 던진다. 그럼 그의 화풍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 준다. 그러고 나서 '그의 일생 중에서 어떤 시기에, 어떤 화풍으로 그린 듯한 고양이 그림 그려줘'라고 했을 때 얻은 결과가 바로 아래 그림이다. AI와 '대화'를 통해 복잡한 결과를 위한 작고 디테일한 정보들을 스스로 찾고, 정리하게끔 하는 것이다.



부족한 창의력도 대답해 주나요?

생성형 AI 프로그램을 쓰다 보면 한 가지 한계에 부딪힌다. 바로 자신의 '창의력'이다. 좋은 질문을 하고 싶어도 나의 창의력과 생각의 한계 때문에 더 나은 질문을 하지 못할 때가 있다. 그럴 땐 당황하지 말고, 창의력을 AI에서 얻으면 된다. '바닷속 유리 정원'이라는 아이디어로 영화를 만들고 싶다고 가정해 보자. 하지만 그 이상 더 명확하고 디테일한 추가 질문이 떠오르지 않을 땐 이렇게 질문해 보자

'나는 지금 상상력이 너무 부족해, 바닷속 유리 정원이라는 아이디어로 영화를 만들고 싶어. 여러 가지 아이디를 제시해 줄 수 있을까?'



그럼 생성형AI는 풍부하고 다양한 아이디어를 내놓을 것이다. 그중에서 마음에 드는 한 가지를 선택해, 질문 형식(프롬프트)으로 변형하면 된다. 그렇다면 프롬프트는 또 어떻게 만들지 고민에 빠지는데,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AI에 해당 아이디어 텍스트를 복사해 넣고 '이 아이디어로 영화 스틸 컷 프롬프트 만들어줘'라고 명령하면, 스틸 컷을 만들 수 있는 다양한 프롬프트를 제공할 것이다. 그럼 그중에서 자신이 생각한 것과 같은 프롬프트를 골라 복사해서 넣으며 '해당 프롬프트로 이미지 만들어줘'라고 입력하면 끝. 몇 가지 질문과 선택만으로 자신의 창의력을 뛰어넘는 가지각색의 이미지를 손쉽게 얻을 수 있다.

Text. 편집실

타이어 스키드마크, 기록의 은유

인간은 본능적으로 흔적을 남기려는 존재다. 선사시대 동굴 벽화에서부터 디지털 세상 속 소셜 미디어의 게시글에 이르기까지, 우리는 흔적을 남기고 기록을 축적하며 자신의 존재를 증명해 왔다. 타이어의 스키드마크는 단순한 자동차의 물리적 흔적 이상으로, 인간 기록의 본질을 탐구하는 데 적합한 비유로 볼 수 있다.



기록의 본질:
존재의 증명과 기억의 축적

타이어가 남긴 스키드마크는 차량과 도로가 충돌하며 만들어진 일종의 '의도치 않은 서명'이다. 그 안에는 차종, 타이어의 마모 상태, 드라이버의 주행 습관과 같은 정보가 담겨 있다. 이는 물리적 힘의 흔적이자, 의도와 우연이 교차하는 순간의 기록이다. 마치 고대 동굴 벽화가 당시 사람들의 삶과 환경을 함축적으로 보여주듯, 스키드마크는 짧은 시간에 축적된 이야기를 전달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스키드마크는 기록의 원초적 형태를 상징한다고 볼 수 있다. 기록이란 흔적을 남기고, 그 흔적이 해석될 가능성을 열어 두는 행위이며, 이는 타이어의 스키드마크가 자연스럽게 보여주는 기능이다.

기록은 단순히 정보를 저장하는 도구가 아니다. 기록은 인간이 자신의 존재를 입증하고 세상에 흔적을 남기기 위한 핵심 행위다. 고대 메소포타미아의 점토판에서 중세의 필사본, 현대의 디지털 데이터에 이르기까지, 기록은 인간의 기억을 축적하는 방식으로 기능해 왔다. 기억은 한 개인의 삶과 정체성을 구성하며, 기록은 그 기억을 물리적으로 구체화한다.

타이어의 스키드마크는 한 번의 짧은 주행을 증명하는 흔적이지만, 그 안에 담긴 정보는 단순하지 않다. 드라이버의 성향, 차량의 특성, 도로의 상태와 같은 다양한 요소가 스키드마크에 내재한다. 이처럼 기록은 단순한 저장이 아니라, 여러 층위의 의미를 압축적으로 담고 해석 가능성을 열어주는 행위다. 기록의 이러한 다층적 특성은 인류 역사 전반에 걸쳐 일관되게 나타난다.

영원히 남기고 싶은
흔적을 해석하다

타이어의 스키드마크는 본질적으로 일시적이다. 마모되거나 세월이 지나면 사라지는 이 흔적은 인간이 남기는 기록의 유한성을 떠올리게 한다. 그러나 인간은 유한성을 초월하고자 하는 욕망을 품고 끊임없이 기록을 남긴다. 고대 이집트의 피라미드와 같은 거대한 유적, 로마의 도로망, 그리고 오늘날 인터넷 서버에 저장된 디지털 데이터는 인간이 영원성을 추구하는 방식의 다양한 예다. 이러한 기록의 시도는 단순히 정보를 전하는 것을 넘어, "내가 여기에 있었다"는 존재의 증명을 위한 행위다.

스키드마크가 일시적이기에 더욱 매력적인 것처럼, 인간 기록 역시 유한성과 영원성 사이에서 긴장 관계를 형성한다. 영원히 남기를 바라지만, 동시에 그 기록이 망각되거나 사라질 가능성을 내포한다. 이러한 양가적인 특성은 기록이 가진 인간적인 매력을 강조한다.

기록의 가치는 단순히 남겨진 흔적에 있지 않다. 그것을 해석하고 새로운 의미를 부여하는 과정에서 기록은 진정한 가치를 갖는다. 타이어의 스키드마크를 연구하는 전문가들은 마치 탐정처럼 그 흔적을 분석하여 사고의 원인, 차량의 속도, 드라이버의 행동을 유추한다. 이와 마찬가지로, 인간이 남긴 기록은 해석을 통해 살아난다.

예를 들어, 고대 문서의 해독은 단순히 글자를 읽는 작업이 아니라, 그 시대의 삶과 사고방식을 이해하는 작업이다. 기록의 흔적을 읽는 일은 단순히 과거를 복원하는 것이 아니라, 현재와 과거를 연결하고, 기록 속에 담긴 새로운 이야기를 발견하는 창조적 행위다. 타이어의 스키드마크도 단순한 자국이 아니라, 해석을 통해 더 넓은 맥락과 의미를 부여받는다.

디지털 시대의 기록:
흔적의 새로운 형태

오늘날 우리는 디지털 시대에 살고 있다. 이 시대의 기록은 물리적 흔적에서 벗어나 가상 공간에 저장된다. 타이어의 스키드마크처럼 물리적 형태로 남지 않더라도, 디지털 기록은 또 다른 방식으로 인간의 흔적을 남기고 있다. 그러나 디지털 기록의 특징은 지나치게 방대하고, 삭제가 가능하며, 조작되기 쉽다는 점에서 물리적 기록과 다르다.

디지털 흔적은 우리에게 새로운 질문을 던진다. 우리가 남기는 SNS 게시물, 이메일, GPS 데이터 등은 과연 우리가 의도한 대로 우리의 존재를 증명하고 있는가? 스키드마크처럼 단순하고 함축적인 흔적이 아니라, 과잉된 데이터 속에서 인간다움과 기록의 진정한 가치를 찾는 일이 점점 어려워지고 있다.

디지털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더 이상 단순한 물리적 흔적만을 남기지 않는다. 그러나 기록의 본질은 변하지 않았다. 우리는 여전히 흔적을 남기고, 그 흔적을 해석하며, 존재를 증명하고자 한다. 타이어의 스키드마크가 그 자체로 하나의 이야기를 품고 있듯이, 인간의 모든 기록은 자신만의 서사를 간직하며 우리 삶의 일부가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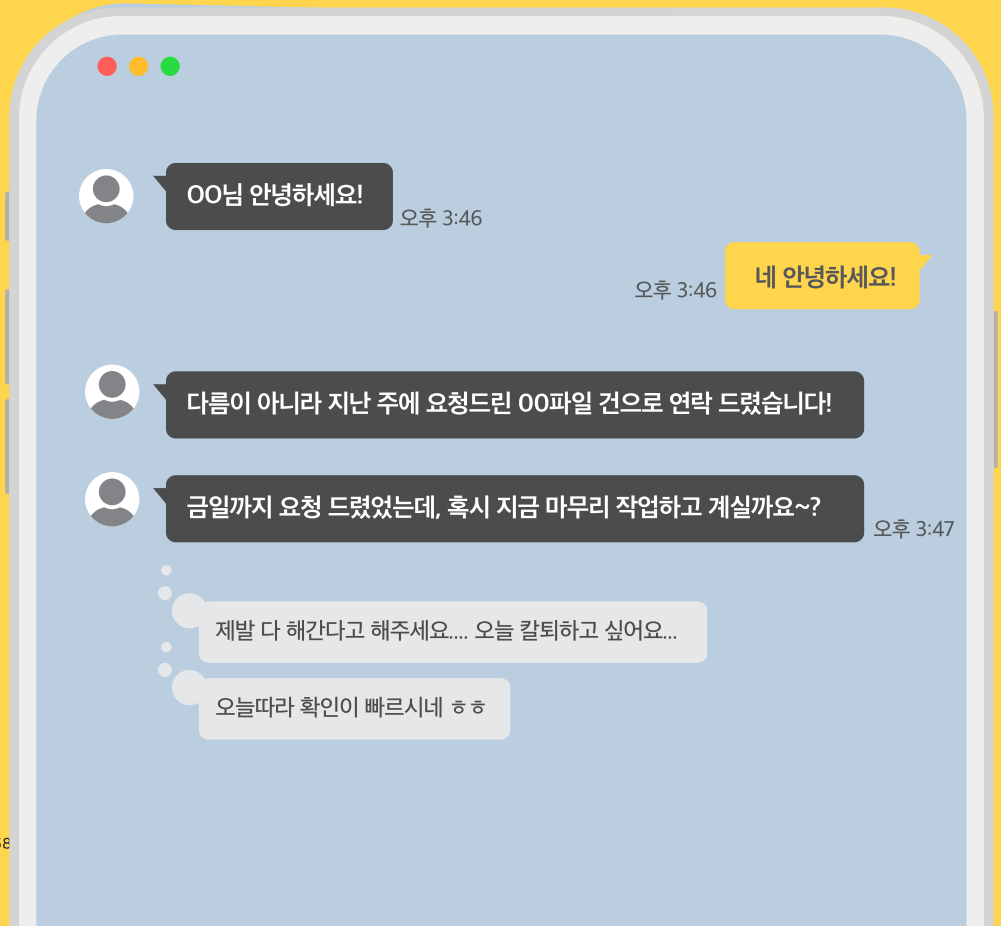
Text. 편집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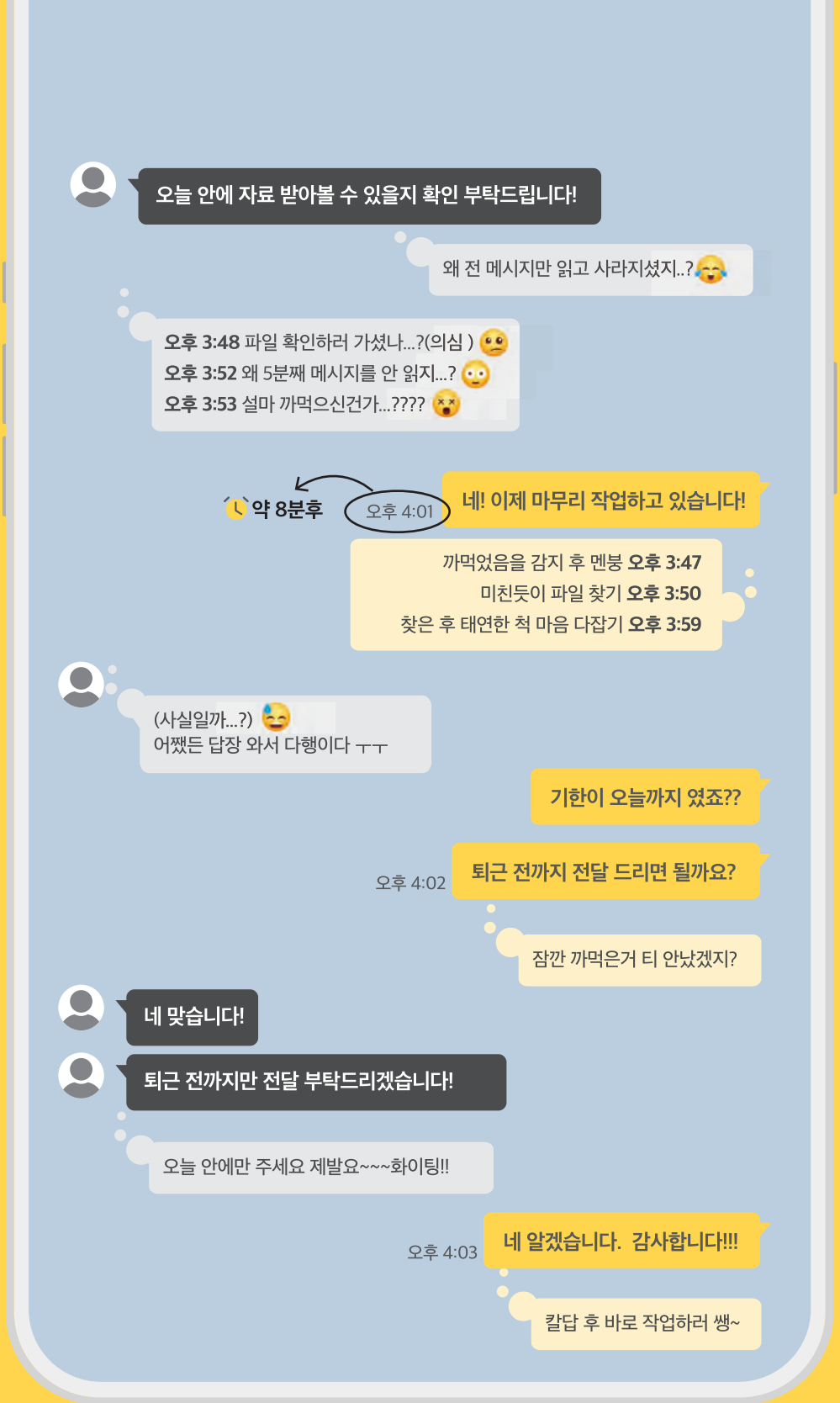
업무 SNS 메시지 동료의 속마음이 궁금해!

하루에도 무수하게 주고받는 동료와의 업무 SNS! 때로는 물결 표시 하나, 때로는 뒤늦게 오는 답변 시간에 상대방의 진짜 의도가 궁금해지곤 한다. 조금만 자세히 관찰하면 소심하게 표현된 감정들이 보이게 된다. 지금 바로 속마음 번역기를 돌려보자.

답장 속도에 담긴 비밀 코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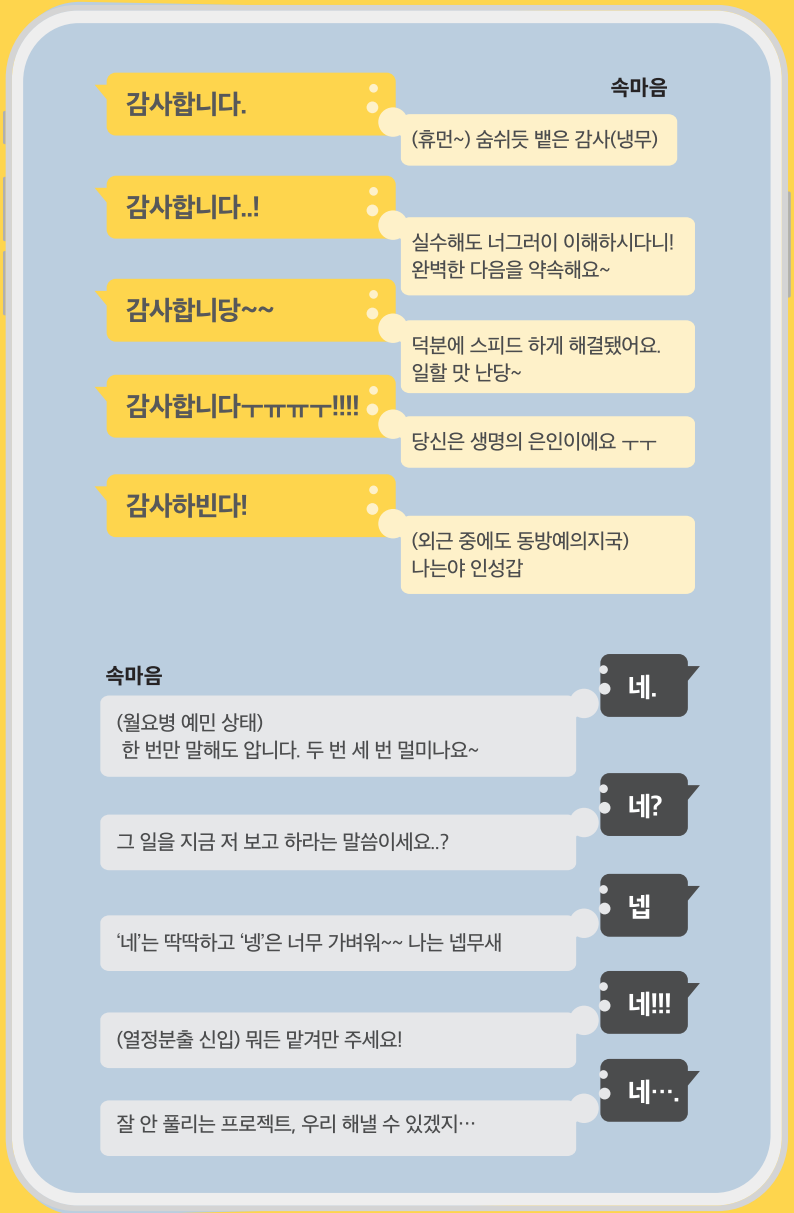
연락과 연락 사이 시간차는 생각보다 많은 의미를 담고 있다. 답장 전 생각하는 시간, 답장하는 타이밍, 상대방의 답장을 기다리는 시간 등 그 찰나의 순간에는 정말 여러 가지 감정(간절함, 속상함, 기쁨, 안타까움 등)이 오고 간다. 하지만 업무 효율과 서로 간의 신뢰를 위해서는 빠른 답장이 필수! 서로 얼굴을 보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기에 답장 속도가 늦으면 오해가 생길 수 있다. 따라서 부득이하게 답장이 제때 어려울 것 같다면, 상대방을 위해 회신 가능한 시간이라도 답변을 해놓자!




오늘 안에 자료 받아볼 수 있을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왜 전 메시지만 읽고 사라지셨지..?
오후 3:48 파일 확인하러 가셨나...?(의심)
오후 3:52 왜 5분째 메시지를 안 읽지...?
오후 3:53 설마 까먹으신건가...????
약 8분후
오후 4:01
네! 이제 마무리 작업하고 있습니다!
까먹었음을 감지 후 멘붕 오후 3:47
미친듯이 파일 찾기 오후 3:50
찾은 후 태연한 척 마음 다잡기 오후 3:59
(사실일까...?)
어쨌든 답장 와서 다행이다 ㅜㅜ
기한이 오늘까지 였죠??
오후 4:02
퇴근 전까지 전달 드리면 될까요?
잠깐 까먹은거 티 안났겠지?
네 맞습니다!
퇴근 전까지만 전달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안에만 주세요 제발요~~~화이팅!!
오후 4:03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칼답 후 바로 작업하러 쌩~

기호 하나에도 무궁무진한 해석

우리가 자주 쓰는 말 뒤에 붙는 기호에는 미묘하게 다른 감정들이 담겨 있다. 때로는 나의 속마음을 드러내기 위해, 때로는 숨기기 위해 다양한 기호를 즐겨 사용하는 직장인들. 그중에서도 가장 많이 사용하고, 선호하는 표현은 깔끔하면서도 적당한 배려와 따뜻함을 가진 표현일 것이다. 다소 딱딱할 수 있는 업무적인 대화에서 살짝 엿보이는 친절함으로 긍정의 에너지를 전해보는 것은 어떨까?



선후배 메시지 솔루션



SOLUTION

상사는? _____
모호한 표현은 지양하자!

후배는? _____
질문하기를 두려워하지 말자!

신입 사원은 매일매일 적응과의 전쟁이다. 일명 '알잘딱깔센(알아서 잘, 딱! 깔끔한 센스)' 모드를 장착하기 위해서는 일도 열심히 익히면서 쉼 없이 분위기 파악도 해야 한다. 이런 상황에서 상사가 모호한 지시를 내리면 멘탈이 흔들릴 수 있다. 눈치로 상사의 의도를 캐치해야 할지, 직접 물어봐야 할지 고민이 될 것이다. 따라서 상사는 모호한 표현을 지양하고 지시를 좀 더 구체적으로 하는 것을 추천한다. 또한 후배는 질문하기를 두려워하지 말자! 신입사원의 가장 큰 덕목은 '잘 질문하는 것'이다.



SOLUTION

상사는? _____
무언가를 요청 시 간단하게라도 용건을 알려주자

후배는? _____
선배는 가장 큰 조력자라고 생각하자!

요즘 직장 내 소통 문화는 존중과 배려를 바탕으로 비교적 많이 편해지고 자유로워졌지만, 서로 다른 직급 사이의 소통은 아직도 어렵고, 여전히 조심스럽다. 상사는 일이 서툰 후배를 배려해 주고 싶지만 신입은 상사의 말이 긴장이 된다. 따라서 상사는 신입이 오해하지 않도록 용건을 정확하게 이야기해 주어야 하고 신입은 조금 열린 마음으로 상사에게 다가가는 노력이 필요하다. 신입에게 직속 상사는 직장 내 가장 큰 조력자라는 것을 잊지 말자!

ISSUE ①

강호찬 부회장, ‘국가품질상’ 철탑산업훈장 수상

Text. 보도자료 **Photo.** 임동욱



강호찬 넥센타이어 대표이사 부회장이 산업통상자원부가 주최하고 한국표준협회가 주관하는 제50회 국가품질경영대회에서 철탑산업훈장을 받았다. 산업훈장은 산업현장에서 품질 향상, 원가절감, 생산성 향상 등 품질경영 활동을 통하여 경영활동 전반에 현저한 성과를 거둔 개인에게 주는 최고 영예의 상으로, 품질경영 활동의 범국가적 확산과 품질 강국 실현을 위해 포상하고 있다. 행사는 11월 20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 오디토리움에서 열렸다.

이날 강 부회장의 철탑산업훈장 수훈과 함께 넥센타이어 창녕공장은 화학 분야 ‘품질경쟁력 우수기업’으로 4년 연속 선정됐다. 창녕공장을 중심으로 한 전 임직원의 노력과 끊임없는 품질 혁신의 결과다. 또한, 올해 제50회 국가품질혁신경진대회에 출전한 품질분임조 2개 팀도 모두 금상을 수상했다. 강 부회장은 “최첨단 자동화 설비와 철저한 품질관리 시스템을 바탕으로, 고객에게 최상의 제품과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품질 혁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며,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한 환경친화적인 기술 개발과 생산 공정 개선을 통해 품질경영과 ESG 경영 실천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수상 소감을 밝혔다.


제50회 국가품질경영대회
품질경쟁력우수기업
넥센타이어㈜ 창녕공장
넥센타이어㈜ 창녕공장


제50회 국가품질경영대회
철탑산업훈장
넥센타이어㈜
강 호 찬
대표이사


1975 - 2024
제50회 국가품질경영대회
THE 50th NATIONAL QUALITY MANAGEMENT CONVENTION

ISSUE ②

Text. 보도자료 Photo. 임동욱

넥센타이어, 오네 슈퍼레이스 ‘타이어 제조사 챔피언’ 2년 연속 등극

넥센타이어가 ‘2024 오네 슈퍼레이스 챔피언십’ 슈퍼 6000 클래스에 참여하여 총 9개 라운드 중 최종전을 포함해 8개 라운드에서 우승하는 독보적인 기록을 세우고 타이어 제조사 챔피언에 2년 연속 등극했다.

넥센타이어는 참가 팀별로 드라이버들의 점수를 합산해 평가하는 부문에서도 1위를 차지해 ‘팀 챔피언’에 올랐고, 라운드별 선수 개인 점수를 합산한 기록으로 벌이는 대결에서도 넥센타이어를 장착하고 주행한 선수가 1위에 올라 ‘드라이버 챔피언’을 수상했다.

넥센타이어는 서한GP, 오네 레이싱, 원레이싱 팀에 레이싱 전용 타이어인 ‘엔페라 SS01(N'FERA SS01)’과 ‘엔페라 SW01(N'FERA SW01)’을 공급하여 모터스포츠 현장에서 제품의 우수한 성능을 입증했다. 엔페라 SS01은 패턴이 없는 레이싱 전용 슬릭 타이어로 마른 노면에서의 고속주행 및 코너링 성능이 극대화된 제품이고, 엔페라 SW01은 젖은 노면에서 뛰어난 배수 성능을 갖추고 있다.

넥센타이어는 모터스포츠 환경에서 극한의 상황을 견딜 수 있는 고성능 타이어를 개발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기술 혁신을 거듭했다. 모터스포츠에서는 타이어의 내구성, 접지력, 핸들링 성능이 매우 중요하기에, 이를 극대화한 레이싱 전용 타이어 제품을 개발하고 퍼포먼스를 향상하는데 집중했다. 레이싱용 타이어는 급가속, 급제동, 고속 코너링 등 트랙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상황에 대응해야 한다.


2024 O-NE SUPERRACE CHAMPIONSHIP
CHAMPION
2024 TEAM
CHAMPION
NEXEN TIRE
서한 GP
NEXEN
NFERA


NEXEN TIRE
ONE RACING


NEXEN
NFERA


2024 TEAM
NEXEN
서한 GP
NEXEN
NFERA



모터스포츠 경기에서 수집한 실제 데이터를 분석해 타이어 성능을 지속적으로 최적화하는 것도 필요하다. 각 레이스에서 얻은 데이터는 타이어의 마모 정도, 온도 변화, 접지력 등을 세밀하게 기록하며, 이를 통해 타이어의 성능을 더 개선하거나 새로운 기술을 도입할 수 있다.

넥센타이어는 파트너쉽을 체결한 팀들과 긴밀히 협력하며 타이어 성능을 극대화하는 데 노력했다. 레이싱팀은 경기 중 타이어의 반응을 직접 체감하는 주체이기 때문에, 선수들의 피드백과 팀 엔지니어의 의견을 토대로 타이어의 세부적인 조정을 반복적으로 진행한다. 이러한 협업은 타이어의 실제 성능을 한층 업그레이드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넥센타이어는 국내외 다양한 모터스포츠 대회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며 레이싱 경험을 축적하고 기술력을 증명해왔다. 이러한 경험은 타이어 성능을 향상시키는 데 중요한 자산이 됐고, 오네 슈퍼레이스에서도 그 노력이 반영됐다고 볼 수 있다.


DE BRUYNE
17
NEXEN TIRE
MOTORSPORTS
SUPERRA


2024 TEAM
CHAMPION
NEXEN TIRE
서한 GP
06


12:30 - 13:15


슈퍼 6000 클래스
2년 연속
타이어 제조사 챔피언
2023 / 2024
NEXEN TIRE
NEXEN TIRE
NEXEN TIRE

ISSUE ③

Text. 편집실 Photo. 임동욱

가왕의 영광을 차지할 최후의 무대가 펼쳐지다! 2024 넥센타이어 복면가왕



지난 12월 19일, 더넥센유니버시티에서 2024 넥센타이어 복면가왕 본선이 열렸다. 연말을 맞이하여 임직원의 화합을 위해 기획된 이번 행사에서는 온라인으로 치러진 치열한 예선전 끝에 진출한 10명의 직원이 가왕에 도전했다.

1라운드는 2인 1조로 듀엣 공연을 펼친 후, 온라인으로 한 명을 투표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저마다 개성 있는 가면을 쓰고 나온 참가자들은 복면 뒤에서 노래실력을 뽐냈고, 짤막한 장기자랑 시간에는 비트박스, 메들리, 넥센타이어 오행시 등을 선보이며 매력을 마음껏 발산했다.

막상막하의 투표 끝에 아쉽게 탈락한 '주성치'(Infra운영팀 이지훈 책임)는 "재미있고 기억에 남는 시간이었다"고 소감을 전했고, '산타의 눈썰미'(패턴디자인연구팀 조이찬 책임)는 "응원해주신 모든 분께 감사하다"는 말을 남겼다. 멋지게 나이 들고 싶어서 노신사 가면을 준비했다는 '노래하는 노신사'(부산권역 송현영 책임), 이번 행사를 통해 버킷 리스트를 이루었다는 '콜드팍스'(윤리경영팀 남현지 사원), 지난달 입사한 따끈따끈한 신입사원 '열정의 만학도'(강북권역 이태욱 사원)까지 연말에 좋은 이벤트를 준비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소감을 끝으로 자리를 떠났다.

2라운드에서 한층 긴장감을 덜어낸 참가자들은 본격적인 실력을 뽐냈다. 그 결과 '펌킨'(YP기업문화팀 김혜수 사원)이 5위를, '짭조름한 감자튀김'(튜브영업2팀 이영민 선임) 님이 4위를 차지했다. 짭조름한 감자튀김은 "마스크를 만드느라 아내가 고생했는데 다음에 더 좋은 기회로 참여하고 싶다"는 포부를 밝혔다.

김현석 사장은 선의의 경쟁으로 모두의 엔도르핀을 솟구치게 하는 소중한 시간이었다는 소감과 함께 '타이어 트리맨'을 가왕으로 직접 호명했다. 왕좌에 오른 한국OE개발팀 김광선 책임연구원은 금 트로피와 함께 현금 100만 원을 수상했고, 가면을 만들어준 아들과 맛있는 식사를 하겠다는 소감을 남겼다. 2위를 차지한 '나를 가왕석에 태워라'(IOP 김희경 사원)는 은 트로피와 상금 70만 원을, 3위에 선정된 '오페라의 중년'(글로벌OE품질팀 김명환 책임)은 동 트로피와 상금 50만 원을 수상했다.

시상이 마무리된 후 가왕 타이어 트리맨의 피날레 무대가 펼쳐졌다. 지치고 힘들 때 질풍 같은 용기를 전하고 싶다는 메시지와 함께 가수 유정석의 '질풍가도'를 열창했다. 이번 행사를 통해 넥센타이어 임직원들은 함께 웃고 박수 치며 하나 되는 즐거움과 힘찬 새해를 위한 다짐을 나누었다.


2024
복면가왕
넥센타이어








가왕
₩1,000,000
2위
₩700,000
3위
₩500,000



ISSUE ④

핸드드립 커피 원데이 클래스 섬세한 맛과 향을 찾아!

Text. 편집실 **Photo.** 김정호





이색 취미로 소통의 즐거움을 더하는 쎈트리 클래스가 '핸드드립 커피' 수업을 준비했다. 지난 11월 13일 더넥센유니버시티에서 진행된 커피 클래스에는 총 25명의 직원이 참여했다. 지독한 커피 마니아부터 카페인 때문에 평소 커피와 거리를 뒀던 넥센인까지 다양한 구성원들이 함께했다. 카페에서 일반적으로 즐겼던 에스프레소 추출 방식이 아닌 조금은 낯선 핸드드립이라 참여자들의 눈은 호기심으로 반짝였다.

"원두와 물의 비율은 1:16입니다. 물을 32g까지 붓고 원두가 뜸이 들면 30초 있다가…(중략)… 3번에 나눠서 물을 부으면 됩니다."

테이블 위에 저울이 등장하더니, 강사는 혼합 비율에 미세한 무게 조정, 시간별 물 사용량을 지시했다. 분명 커피 클래스라고 했는데, 과학실을 연상케 하는 섬세한 작업에 참여자들도 긴장의 끈을 놓지 못했다. 2인 1조로 서로의 핸드드립 과정을 체크해주는 동안 체험장은 고소하고 그윽한 커피 향으로 가득 찼다. 준비된 간단한 디저트와 직접 내린 커피를 맛보며 그간 커피에 대해 궁금했던 질문들이 쏟아졌다. "가장 맛있는 커피 브랜드는 어디예요?", "원두에 케냐AA라고 쓰여 있는 건 무슨 뜻이에요?", "핸드드립이 에스프레소 추출보다 카페인이 적나요?" 넥센인들의 커피에 대한 학구열이 뜨거웠다. 하루를 여는 루틴이자, 업무 중 각성제로도 활약하며, 휴식의 반려메이트인 커피를 한층 더 깊이 있게 알아보는 시간이었다.









MINI INTERVIEW



한국OE PM팀
임선민 사원

"부모님과 핸드드립을 해서 먹기는 하는데, 이렇게 저울까지 사용하지는 않았죠. 방법을 알게 됐으니 집에서 더 자주 해볼 것 같아요. 끊임없이 저울을 구매하고 싶은 욕심이 생기네요. 커피를 통해 동료들과 소통해서 더욱 좋은 시간이었어요."



컴파운드개발팀
임석환 책임

"센트리 클래스가 열릴 때마다 종종 신청했는데, 커피 수업에 당첨이 됐네요. 평소 커피를 즐겨 먹는 편은 아닌데요. 이번에 직접 내려서 핸드드립 커피를 맛보니까 체인점의 에스프레소 추출 커피보다 조금 더 부드러운 것 같아요. 이제부터는 핸드드립을 연하게 해서 마셔보려고요."



재료연구팀
변상철 선임연구원

"하루에 아메리카노 1리터가량을 마실 정도로 커피를 좋아하고 즐겨 마시는 편이에요. 오늘 수업을 하면서 미세한 계량에 다들 힘들어하셨는데, 저는 재료연구팀이다 보니 조금 전까지 계량을 하다왔거든요. 제 적성에 딱 맞는 클래스였어요."



ESG팀
김미란 책임

"전문적으로 핸드드립 커피를 배울 수 있어서 좋았어요. 오늘 배우면서 사용한 각종 기구들을 사고 싶은 구매욕에 사로잡혔습니다. 커피를 만들고 맛보면서 처음 뵙는 타 부서 동료들과 대화했던 것도 잊지 못할 추억이 됐어요."



(미)SCM팀
박진석 팀장

"매일 마시는 커피였지만 모르고 있었던 게 많았네요. 알고 마시면 더 좋을 것 같아서 클래스를 신청하게 됐어요. 원두 종류의 차이와 커피의 맛을 결정짓는 다양한 요인 등을 배우는 유익한 시간이었습니다. 이제 좀 더 커피의 향과 맛을 미세하게 느껴보려고요."

ISSUE ⑤

제4회 더넥센유니버시티 챔피언십 '탁구대회' 땀으로 빛난 승부사들의 현장

Text. 편집실 **Photo.** 임동욱

지난 10월 23일, 마곡에서는 제4회 더넥센유니버시티 챔피언십 탁구대회 결승전이 진행됐다. 약 일주일간 임직원들이 토너먼트로 예선전을 치렀으며, 쟁쟁한 실력자들을 제치고 오른 결승 경기라 승부 예측이 더욱 어려웠다. 넥센인들의 막상막하 경기력 덕분에 관중석의 응원 열기는 더욱 뜨거워졌다. 한점 만회를 위한 회심의 일격과 숨 막히는 랠리, 복식을 빛낸 짜릿한 팀워크까지 보는 사람들조차 손에 땀을 쥐게 만들었다.

이번 우승자들의 공통된 특징은 사내 탁구대회에 여러 번 참가한 이력이 있으며, 결승과 준결승 경기에서 아쉽게 고배를 마셨던 실력자란 점이다. 끊임없이 우승의 문을 두드린 도전 정신이 결실을 맺는 순간이었다. 단식 1위의 영광은 Virtural연구 BS 성기득 BS장에게 돌아갔으며, 복식 1위는 OE개발 BS 장홍주 BS장과 백종운 책임연구원이, 혼합복식 1위는 중앙연구소 김성래 BS장과 오슬기 사원이 차지했다.

이번 탁구대회가 더욱 특별했던 이유는 OB 임원 조경록 이사와 단식 1위를 차지한 성기득 BS장의 스페셜 매치가 마련됐기 때문이다. 선수급 실력으로 압도적 승리를 거둔 조경록 이사는 "직장 내에서 스포츠를 통해 하나 되는 넥센인들의 모습이 보기 좋다. 그런 값진 시간을 함께해서 즐거웠다"고 감회를 밝혔다.

시상 후, 식당에는 경기 후일담을 나눌 '어울림의 장'이 마련됐다. 치킨과 분식, 과일, 음료와 맥주 등을 먹으며 참가자들은 경기 중 아쉬웠던 순간과 그간 함께 연습해 온 시간들을 추억했다. 또한 매번 진심으로 응원해 준 동료들에게도 감사 인사를 전하느라 이야기는 꼬리에 꼬리를 물었다. 직급과 세대를 뛰어넘어 '땀'으로 하나 된 시간이 앞으로 넥센인들의 소통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을 기대해 본다.













2024 THE NEXEN univerCITY Championship



Virtural연구 BS

성기득 BS장

2년간 연속해서 준우승만 두 번 했던 터라 이번 우승이 더 값지게 느껴지는 것 같아요. 탁구대회 참여는 올해까지만 할 생각에 마음을 비우고 최선을 다했더니 뜻하지 않은 영광을 얻게 됐네요. 그리고 조경록 이사님과의 스페셜 매치를 하며 한 수 위 경기력을 체감할 수 있었습니다.



OE개발 BS

장홍주 BS장 & 백종운 책임연구원

장: 그랜드슬램을 달성했어요. 지난 2년 동안 은메달과 동메달을 땄는데, 올해 드디어 금메달을 목에 걸었으니까요. 좋은 파트너 덕분에 이런 날도 오네요.

백: 장홍주 BS장님의 실력에 제가 무임 승차했습니다. 저 역시 올해 탁구대회 참여가 3번째 도전이었어요. 좋은 결과 얻을 수 있어서 행복하고 연습을 거듭하면서 조금씩 실력이 향상되는 즐거움도 컸습니다.



중앙연구소

김성래 BS장 & 오슬기 사원

김: 오슬기 사원님이 잘 받쳐줬기 때문에 경기 내내 좋은 팀워크를 유지할 수 있었어요. 3년간 계속 탁구대회의 문을 두드렸더니 혼합복식 1위를 하는 날도 오네요.

오: 연습 내내 서브부터 공격 방법까지 김성래 BS장님께서 상세하게 알려주셔서 차근차근 실력을 쌓을 수 있었어요. 땀 흘리며 스포츠로 소통할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ISSUE ⑥

전사 소통 프로그램 ‘소풍 시즌2’

Text. 문화혁신팀 유재훈 책임

지난 10월, 넥센타이어의 대표적인 전사 소통 프로그램으로 자리 잡은 소풍 시즌2가 열렸다. 지난해 참여자들의 폭발적인 반응에 힘입어, 올해는 놀이동산뿐만 아니라 지역별로 다양한 장소를 방문하여 함께 어울릴 수 있는 자리를 마련했다.

이번 소풍 시즌2는 총 80여 명의 임직원들이 8개 팀을 꾸려 진행하였는데, 마곡 사업장 5개 팀은 공교롭게 모두 고궁 투어로 소풍을 갔다. 가을 날씨에 걸맞게 단풍과 어우러진 창경궁과 창덕궁 등의 아름다운 풍경을 보며 힐링하는 시간을 가졌다.

양산 사업장 2개 팀은 놀이동산(롯데월드) 팀과 사찰 투어(통도사) 팀으로 나뉘어 활동하였다. 참여자들은 “업무 공간에서 벗어나 동료들과 어울리는 것이 처음에는 다소 어색했지만, 놀이기구도 타고 맛있는 점심식사도 함께 나눠 먹으며 조금 더 가까워질 수 있었다”고 소감을 밝혔다.

소풍 시즌2의 마무리 일정은 창녕 사업장 1개 팀에서 진행했다. 창녕공장 인근에 위치한 비슬산 자연휴양림을 방문해 약 1시간가량, 가벼운 산책을 하며 건강한 시간을 보냈다. 소풍의 만남은 여기서 끝났지만, 함께 어울린 참가자들의 인연은 이제부터 시작이다.

창녕공장





| 마곡 |





| 양산공장 |





ISSUE ⑦

글로벌 넥센인들의 연말 파티 현장

Text / Photo. (유)인사총무팀 김주엽 팀장



지난 12월 10일 체코 EP 본관동 1층 강당에서 성탄절을 기념해 크리스마스 파티가 열렸다. 임직원들은 쿠키와 차를 마시면서 담소를 나누며 열심히 달려온 한 해에 대한 소회를 주고받았다. 이번 크리스마스 파티는 지역장과 관리 BS장도 함께 자리했다. 평소 직원들이 궁금해하는 부분에 대해 사전 질의를 받아 허심탄회한 Q&A 시간을 가져 더욱 뜻깊은 시간이 됐다. 한편, 독일에서 근무하고 있는 넥센타이어 직원들도 12월 5일 프랑크푸르트 시내에서 한해를 마무리하는 시간을 가졌다.


NEXEN TIRE


NEXEN TIRE


NEXEN TIRE

제1회 '안전문화혁신대상' 우수상 수상



(왼쪽부터) 손경식 경총 회장과 김현석 넥센타이어 사장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넥센타이어가 12월 4일 한국경영자총협회 주관 제1회 '안전문화혁신대상'에서 대기업 부문 우수상을 받았다. 이번 수상으로 넥센타이어는 안전 경영 선도 기업으로서의 입지가 더욱 굳건해졌다.

'안전문화혁신대상'은 경총이 창의적인 안전관리 시스템 도입과 중대 재해 예방을 목표로 올해 처음 제정한 상으로, 대기업과 중소기업 두 부문에서 각각 3개의 우수 기업을 선정했다. 넥센타이어는 ▲안전보건 리더십 강화 ▲안전보건 관리 체계 구축 및 운영 ▲안전 문화 확산 활동 ▲협력사의 안전 역량 강화 등 안전보건 분야에서의 다양한 노력과 성과를 인정받아 높은 평가를 받았다.

넥센타이어는 업계에서 가장 안전한 사업장을 운영하는 것으로 유명하다. 넥센타이어는 지난 10년간 단 한 건의 중대 재해도 발생하지 않았으며, 산업재해율은 업계 평균인 1.6%보다 약 84% 낮은 0.25%를 기록하고 있다. 이는 국제표준화기구의 안전보건경영시스템(ISO 45001)을 기반으로 체계적이고 철저한 안전보건관리시스템 구축과 노사 간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자기 규율 예방 체계를 확립한 결과다.

넥센타이어는 국내 양산·창녕 공장은 물론, 중국과 체코 공장까지 첨단 안전 설비와 화재 대비 소화 시스템을 구축하며 전방위적 안전관리를 실천하고 있다. 산업재해 분석과 사업장 특성을 바탕으로 '등급별 안전규정 운영, 노사 자율 참여형 안전의식 강화 프로그램 운영과 협력사 상생협력프로그램 등 체계적인 산업재해예방 시스템을 구축해 업계의 모범 사례로 인정받고 있다.

이러한 노력으로 넥센타이어는 2022년도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 주관하는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우수사업장'에 선정되어 우수사례로 전파되었으며, 2022년과 2023년에는 각각 '공생협력프로그램'과 '대·중소기업 안전보건 상생협력사업' 우수사업장으로 선정되어 협력사의 산업재해 예방에 기여한 공로를 공적으로 인정받았다.

철저한 안전 관리 체계는 넥센타이어의 품질 경쟁력 강화로도 이어졌다. 넥센타이어는 80여 년의 기술력을 바탕으로 포르쉐, 메르세데스 벤츠, BMW, 아우디 등 글로벌 완성차 28개 브랜드 118종에 신차용 타이어를 공급하며 뛰어난 기술력과 품질을 인정받고 있다.

르노코리아 '그랑 콜레오스'에 신차용 타이어 공급



넥센타이어가 르노코리아의 신형 중형 SUV인 '그랑 콜레오스'에 신차용 19인치 타이어를 공급한다. 이번에 공급되는 '로디안 GTX(ROADIAN GTX)'는 넥센타이어의 최신 기술이 결합된 SUV 전용 사계절용 타이어로 트레드 컴파운드(타이어의 고무층)에 경량화 기술이 적용되어 연비 성능을 향상시켰을 뿐만 아니라 다양한 기후 조건에서 뛰어난 제동 성능과 내마모성을 강화했다.

특히, AI 빅데이터 기술을 활용한 혁신적인 트레드 패턴 설계가 적용된 로디안 GTX는 실내 유입 소음을 저감하는 등 저소음 성능을 최적화하고, 고속 주행 시에도 안정성을 유지하여 더욱 편안하고 조용한 주행 환경을 제공한다. 넥센타이어는 이러한 최신 기술이 적용된 제품으로 그랑 콜레오스의 성능을 극대화하며, 고객들에게 더욱 뛰어난 주행 경험을 선사한다.

넥센타이어는 이번 그랑 콜레오스 신차용 타이어를 공급하며 완성차 제조사로부터 기술력과 품질을 인정받았다. 넥센타이어는 2012년 최초로 해외 완성차 제조사에 신차용 타이어 공급을 시작한 이후 2024년 현재 전 세계 28개 브랜드, 118개 차종에 신차용 타이어를 공급하며 단기간에 글로벌 카메이커의 주요 공급사로 자리매김했다.

이러한 성과는 넥센타이어의 지속적인 R&D 투자를 통해 최첨단 기술력을 갖춘 우수한 제품을 개발해 온 결과다. 특히, 신제품 개발부터 완제품 검사까지 다양한 영역에서 인공지능(AI)과 가상현실(VR) 기술을 적용하고 있다. 2022년 AI 빅데이터 활용 타이어 성능 예측 시스템을 구축한 데 이어 올해 7월에는 'High Dynamic 드라이빙 시뮬레이터'를 국내 타이어 업계 최초로 도입하기로 결정했다.

또한, AI 기반 제품 검사 자동화 시스템을 도입해 타이어 생산 과정에서 제품 검사의 정밀도를 향상시켜 품질 경쟁력을 높이고 있다. 넥센타이어는 이러한 최신 기술을 적용한 타이어 개발을 통해 글로벌 완성차 업체와의 파트너십을 더욱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닷지 차저와 챌린저에 신차용 타이어 공급



넥센타이어가 세계 6위 완성차 제조사인 스텔란티스 산하 닷지(Dodge)의 신형 '차저(Charger)'와 '챌린저(Challenger)'에 신차용 타이어를 공급한다고 밝혔다. 미국 머슬카의 상징인 차저와 챌린저는 전동화 흐름에 발맞춰 올해 말 전동화 모델을 출시할 예정이며, 넥센타이어는 가솔린과 전기차 모델 모두에 신차용 타이어를 공급한다.

신형 닷지 차저와 챌린저에 공급되는 사계절용 타이어 '엔페라 AU7(N'Fera AU7)'은 고성능 프리미엄 차량을 위해 개발된 초고성능(UHP) 타이어다. 북미 지역에서의 다양한 기후 조건 및 도로 상황에서 제동력과 젖은 노면에서의 그립력 기준을 충족시켜 최상의 주행 성능을 제공한다. 또한, 소음, 진동에서 기존 제품보다도 대폭 강화된 설계기준을 적용해 프리미엄 차량에서 요구되는 안락한 주행 성능도 확보했다.

더불어, 엔페라 AU7은 세계 3대 디자인 어워드인 독일의 'iF 디자인 어워드'와 '레드닷 디자인 어워드', 미국 'IDEA 디자인 어워드'에서 수상하면서 성능뿐 아니라 디자인에서도 세계적으로 경쟁력을 인정받은 제품이다.

2014년부터 닷지에 신차용 타이어를 공급해 온 넥센타이어는 2018년부터 챌린저에 고성능 레이싱용 타이어인 엔페라 SUR4G를 공급한 바 있다. 이번 닷지 차저 및 챌린저 공급은 물론, 지프 브랜드의 전동화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등 스텔란티스와의 협력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다.

2024 올해의 브랜드상 선정



넥센타이어가 한국광고학회에서 주관하는 '2024 올해의 브랜드상'을 수상했다. 이 상은 산업현장에서 마케팅 커뮤니케이션을 통해 고객 만족과 고객 충성도 제고 및 브랜드 자산 구축 등의 면에서 성과를 보인 기업 또는 브랜드에 시상하며, 올해는 넥센타이어를 포함하여 총 5개 사가 수상했다.

넥센타이어는 올해 브랜드 홍보를 위해 'Next Evolution' 광고 캠페인을 펼쳤다. 'EV(Electronic Vehicle, 전기차)'의 출현이 자동차의 패러다임을 전환했다고 해석하여 'Evolution(진화)'이라는 가치를 부여했다. 캠페인은 넥센타이어가 지향하는 '젊고, 합리적인' 이미지를 소비자들에게 전달하고 있으며, '소음이 적은 타이어', '마모를 줄인 타이어'라는 제품의 기능적 이미지도 나타내고 있다.

넥센타이어는 EV 전용 브랜드를 내세우기보다, 기업 브랜드를 중심으로 EV 타이어 시장을 선도하는 차별화된 전략을 선택했다. 넥센타이어의 혁신적인 브랜드 이미지를 유지하면서도, 고객 중심의 시각에서 실리적인 기능을 만족시키는 '더 조용하고 편안한 주행을 목표로 하는 EV 타이어 라이프'를 표현했다.

또, 넥센 EV 타이어에 대한 인지도 제고와 함께, EV 시대에 맞춰 '다시, 새롭게, 모든 것을 다시 쓰는' 넥센타이어의 혁신적인 철학과 가치관도 함께 전하고자 했다.

‘2024 지역사회공헌 인정제’ 신규 인정기관 선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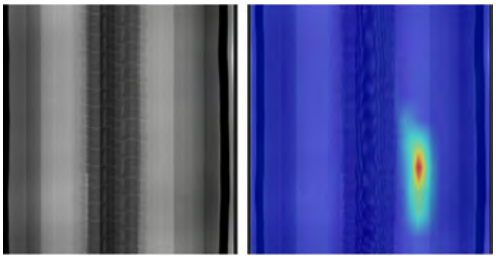


넥센타이어는 보건복지부와 한국사회복지협의회가 주관하는 ‘2024년 지역사회공헌 인정제’의 신규 인정기관으로 선정됐다. 11월 27일 열린 ‘2024 지역사회공헌 인정의 날’ 행사에서 넥센타이어는 경남지역 30개 신규 인정기관을 대표해 지역사회공헌 인정패를 수상했다.

‘지역사회공헌 인정제’는 비영리단체와 협력해 지속적으로 지역사회에 공헌한 기업과 기관을 발굴하고, 그 공로를 지역사회가 인정하는 제도로 전문 심사위원들로 구성된 평가단이 환경경영, 사회공헌 프로그램, 투명경영 등 8개 항목 총 24개의 세부 지표에 대해 심사한다.

넥센타이어는 △사회복지기관 타이어 지원 사업 △취약계층 밑반찬 지원 ‘희망나누미 봉사회’ △헌혈 캠페인 △연탄 나눔 △농산물 기부 △난지도 숲 조성 등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또한, 기업 이익의 사회 환원을 목적으로 넥센월석문화재단, 월석부산장학회, KNN문화재단 등 3개의 재단을 운영하며, 부산 및 경남 지방을 포함한 다양한 지역에서 문화사업과 장학사업을 통해 소외된 지역사회를 지원하고 있다.

AI 도입해 제품 검사 자동화…품질 경쟁력 강화



넥센타이어가 AI 기반 타이어 제품 검사 자동화 시스템을 개발해 생산 현장에 적용했다고 밝혔다.

신규 공장이나 설비에 손쉽게 적용 가능하도록 플랫폼 형태로 시스템을 개발하여 국내 및 해외 공장 설비에 적용한 것은 타이어 업계 최초다. 이로써 타이어 개발 과정에 AI 적용을 확대해 온 넥센타이어는 이번 제품 검사 자동화 시스템 도입을 통해 제조 공정까지 AI 활용 범위를 확대했다. 제품 특성상 극한의 주행 환경에서도 탑승자의 안전을 보장해야 하는 타이어는 개발 과정부터 수백 가지 시험을 통과한 제품만 생산된다. 타이어 제조사들은 제품의 미세한 결함까지 찾아내기 위해 검사 공정에 가장 큰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넥센타이어의 AI 기반 제품 검사 자동화 시스템은 머신비전(Machine Vision, 기계가 카메라를 통해 시각적인 정보를 인식, 분석하는 기술) 방식의 비파괴 검사 장비를 대상으로 적용됐다. 제품의 구조적 결함을 탐지하는 ‘엑스레이(X-ray) 검사 장비’와 기포를 탐지하는 ‘레이저 간섭계 검사 장비(쉬어로그래피, Shearography)’가 여기에 해당되는데, 기존에 작업자의 시각에 의존하던 검사 이미지 판독을 AI가 돕는 것이다.

특히, 부적합 검출 재현율이 최고 99.96%에 이르는 정확도를 확보했다. 타이어 검사 전문가들도 육안으로 확인이 어려워 놓칠 수 있는 미세 결함 또한 지속적으로 탐지하고 있어, 소비자가 더욱 신뢰할 수 있는 제품을 공급할 수 있는 환경 구축에 기여하고 있다.

또한, AI가 학습하고 실무에 적용하는 과정까지 자동화하여 시스템의 실용성을 높인 것이 특징이다. 시스템의 실용성 확보를 위해 넥센타이어는 AutoML(머신 러닝 자동화) 솔루션으로 유명한 뉴로클社를 비롯해 타이어 설계·해석·데이터 처리를 전문으로 다루는 PDS솔루션社와 초기 설계부터 완성 단계까지 긴밀하게 협업했다. 단순 머신 러닝 자동화를 넘어 AI 학습용 파일의 선별적 수집, AI 모델 학습, 모델 검증, 실제 적용, 사후 모니터링까지 AI 모델의 라이프사이클 전체를 최적화하고 자동화하는 MLOps(Machine Learning Operations, 머신러닝 운영 관리) 기술과 플랫폼형 시스템을 타이어 업계 최초로 적용한 것이다.

그 결과 기존 방식으로는 하나의 검사 장비를 대상으로 6~12개월까지 걸리던 딥러닝 모델 생성 기간을 이틀 내에 완료할 수 있으며, 플랫폼형 시스템을 통해 신규 공장 또는 설비에도 즉각 활용이 가능하다. 또한, 실제 최근 신규로 검사 장비를 도입한 공장에서 기존에 시스템이 구축된 공장의 데이터로 학습된 AI의 도움으로 조기에 공정 안정화를 실현할 수 있었다.

HELLO NEXEN

참여해주세요

〈헬로우 넥센〉
참여를
원하시는 분은
사연을
보내주세요.

/
사내 특별한
소식이 있다면
소개해 주세요
/

참여 및 도움을 주신 분들께는
소정의 선물을 드립니다.

〈헬로우 넥센〉
구독 및 구독 정보 변경을
원하시는 사내외 독자는
넥센타이어 홈페이지의
사보 게시판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사보 담당자
문화혁신팀 김희진 책임
hellonexen@nexentire.com

〈헬로우 넥센〉 신년호 이벤트 참여

〈헬로우 넥센〉
웹진 이벤트에
참여하시는 분들 중
추첨을 통해
소정의 선물을
보내드립니다.

이벤트 참여 방법

하단의 QR 코드 스캔하기

▼

이벤트 참여하기

▼

인적사항 기입

▼

추첨을 통해
소정의 선물을 드립니다.
(기프티콘 증정)

당첨자 확인과 상품 발송을 위해
성함, 연락처를
반드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N'FERA Supreme
소리 없이
편안 하니까!
N'FERA Supreme
PC / SUV
NEXEN TIRE
we got you



NEXEN TIRE
we got you